中源新報

The Jungwon University Times

제2호 2013년 5월 24일(금)/계간

발행인 · 안병환 | 발행처 · 중원대학교 홍보실

주소 · 충청북도 괴산군 괴산읍 문무로 85 중원대학교

전화 043-830-8074 | FAX 043-830-8079 | www.jwu.ac.kr



한반도의 중심, 중원대학교!
교양인, 전문인, 세계인을 키우는
글로벌 대학으로 만든다!

지면안내

2면 Campus News
중원대 교수 5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3면 Campus News
글로벌 중원대로 이끌어갈
안병환 총장을 만나다!

4면 Campus News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첫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5면 Campus News
중원대-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약자원기술발전 MOU 체결

6면 Campus News
중원대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가져

7면 Campus News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인재 육성
학생군사학교장,
중원대학교 학생 대상 안보특강

8면 Career
2013년 농협 취업전략 세미나 개최

9면 Career
백평구 교수의 취업스케치

10면 Career
유망직종 엿보기 - 운동처방사

11면 Culture
그래도 마셔야겠다면...

12면 Student Life
동·하계 스포츠를 제패한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

13면 Student Life
단과대학 소개

14면 Student Life
우리는 중원의 제1기 학생기자!

16면 Student Life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18면 Column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중원대 교수 5명,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교육부, 한국연구재단 약 8.800만원 지원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 선정


홍영숙 교수


박성억 교수


이남주 교수


염재웅 교수


박혜자 교수

중원대(총장 안병환)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이 주관하는 2013년도 인문사회분야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 5명의 교수가 동시에 선정되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에는 홍영숙(교양학부) 교수의 '한국초등학교에서 비원어민 영어교사로 살아가기: 교사 정체성 형성을 중심으로', 박성억(산업디자인학과) 교수의 '공공서비스디자인의 컬러어포던스 적용을 통한 소비자행동유도에 관한 연구', 이남주(스포츠건강의학과) 교수의 '주의력 결핍 및 과잉행동장애 아동들의 Hippotherapy 적용이 fMRI를 기반으로한 뇌기능과 basal BDNF변화에 미치는 영향', 염재웅(중국통상학과) 교수의 '한국한자음 이독자의 분포와 수용양상에 대한 음운학적 연구', 박혜자(일본통상학과) 교수의 '일본어의 다층적 어의구조와 언어전이 메카니즘 연구' 등 5명의 교수가 선정됐다.

신진연구자 지원사업은 연구력이 왕성한 신진교수의 창의적 연구의욕 고취 및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하고 신진교수의 연구역량 극대화를 통한 우수학자로의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선정 기준은 독창성과 수월성, 연구역량에 대한 기대효과가 반영됐다.

이번 선정으로 중원대는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약 8,800만원의 연구비를 지원받는다.

〈편집부〉

중원대, 1인당 평균 장학금 충북 1위, 전국 11위!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가 2012학년도 기준 충북지역 4년제 대학 가운데 1인당 평균 장학금이 1위, 전국 4년제 대학 가운데 11위를 차지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한국교육개발원,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21일 대학정보공시센터의 '대학알리미(www.academyinfo.go.kr)'를 통해 공개한 전국 4년제 대학교의 장학금 공시정보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중원대의 1인당 평균 장학금은 383만 3천 원으로 충북지역은 물론 전국적으로 최상위에 올랐다.

신입생 전원에게 입학금 전액을 장학금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이와 별도로 매학기 성적 우수자와 국가고시, 공로, 학술활동, 근로 등 각 분야에서 특기와 우수성이 두드러진 학생들에게는 별도의 장학금을 지급하는 등 국내 최고 수준의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또한 교육의 국제화와 재학생의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해외 명문대학 진학 시 졸업생에게 2년간 장학금을 지급한다.

학생 전원에게는 각종 편의시설이 완벽하게 갖추어진 기숙사를 재학기간 내내 제공하고 있다. 경제적 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최적의 면학 분위기를 조성하고 인성을 함양하기 위해서다.

중원대 만의 글로벌 인재 양성 프로그램도 돋보인다.

세계 명문대학들과 교류를 맺고 있는 중원대는 작년 한해 동안 5개국 7개 대학 및 교육기관과 교류협력 관계를 맺어 교수, 직원, 학생을 망라한 인적교류와 학사교류, 학술교류 및 공동협력사업 추진 등 학생들과 대학의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실질적인 교류를 추진하고 있다.

재학생은 해외 자매대학과의 협정에 의한 교환학생을 비롯해 학교지원, 해외 자매대학 초청, 해외 정부 초청 등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하게 장학금이 지원되고,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고 있으며, 일부 해외 대학과는 2+2 복수학위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신현주 학생처장은 "우리 대학의 전국 최상위 수준 장학 혜택과 지원은 재단의 전폭적이고 꾸준한 지원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며, 향후에도 우수학생의 유치와 재학생의 교육성과 제고를 위해 최적의 장학제도와 프로그램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부〉

'중원캠퍼스에서 인재를 찾아라!'

주요 금융기관들 '캠퍼스 리쿠르팅' 잇따라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가 2013년 상반기 신입사원 공개채용 기간을 맞이해 국내 금융기관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과 다양하고 참신한 인재를 연결해 주기 위해 중원대학교 캠퍼스에서 메리츠화재, 삼성생명, 한화생명 등 주요 금융기관이 참가하는 금융기업별 채용설명회와 채용상담 등 '캠퍼스 리쿠르팅'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캠퍼스 리쿠르팅 기간 중 채용설명회는 학생처 취업지원팀에서 2013학년도 1학기 개강에 맞추어 채용설명회가 열렸다.

채용설명회와 상담을 통해 취직에 성공한 변세아(사회복지학과 졸업·메리츠화재 입사) 씨는 "처음에는 금융회사라는 선입견과 막막함으로 어떤 회사를 어떻게 준비할지 막막했는데, 캠퍼스 채용설명회를 통해 진로를 확정할 수 있었다"며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후배들에게 도전의식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라고 추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업의 채용 설명회와 개별 기업 취업 상담 등 '캠퍼스 리크루팅'은 우수한 인재를 선점하기 위한 기업의 고민이 반영된 행사다. 따라서 기업들은 대학을 직접 방문해 최근 취업 트렌드와 기업 홍보, 채용 전형 등을 설명하며,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희망하는 기업의 이모저모를 사전에 파악하고 기업의 채용 방향과 사업 비전 등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리여서 3~4학년 취업 준비생은 물론 재학생들에게도 좋은 기회가 되고 있다. 〈편집부〉

문의: 학생처 취업지원팀

(학생회관 2층/☎ 043-830-8123)

취업지원팀은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학과 및 전공에 크게 구애 받지 않고 자신의 전문분야를 선정해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관련 기업들의 채용 상담 및 설명회 유치를 확대 할 예정이다. 또한 다양한 취업프로그램을 진행하며 학생들의 진로설정, 자기계발, 취업지원 등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획취재 | 향후 4년간 중원대를 글로벌 대학으로 이끌어갈 신임 안병환 총장을 만나다!

“미래를 위해 나는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가?”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라!

구체적 목표를 세워라!

결정적 순간을 놓치지 마라!







▲안병환 총장이 4월 9일 오전 총장실에서 언론장학생들과 취임 후 첫 인터뷰를 하고 있다.

세계를 밝히는 커다란 빛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원대학교, 중원대를 이끌어 나가는 교육학자 안병환 총장님. 앞으로 중원대를 글로벌 명문대학교로 이끌기 위한 목표와 여정을 학생들을 대표하여 언론장학생들에게 들려주는 시간을 가졌다. 〈편집자주〉

Q : 총장님의 신념은 무엇인가요?

A : “Self-Talk” 긍정적인 내면의 대화를 시도하라.

“Self-Talk” 총장님의 신념을 물었을 때 가장 먼저 나온 말이다. “Self-Talk”는 자기대화, 즉 자신이 자신의 내면과 대화하는 것이다. 우리는 항상 자기 자신과 긍정적인 대화를 함으로써 자신감과 희망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Q : 대학생활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해주실 조언은?

A : 모든 만남을 중요시 여겨라.

누구를 만나는가?, 무엇을 위해 만나는가? 그리고 무엇과 접촉하는가?

직접적으로 겪는 것이 가장 좋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간접적으로라도 자신이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과 접촉 해야 한다. 삶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건설할 수만 있다면, 독서나 강연을 통해서라도 세상을 경험할 필요가 있다.

Q : 총장님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기억에 남는 만남은 무엇인가요?

A : “대학생 때 4학년 선배가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것을 보고 엄청난 충격과 자극을 받았다. 그때 세상을 바라보는 내 시야가 너무 좁다는 것을 깨달았다.”

가장 기억에 남는 두 번째 만남은 “중국에서 만난 한국인인데, 그분은 연세가 60이 되셨는데도 90살까지 일하기 위해 공부하려고 이곳에 왔다고 하셨다. 그때 드는 생각이 ‘도전하자, 부딪혀 보자’ 였고, 그 이후로는 엄청 바쁘게 하루하루를 보내려고 노력했다”고 하셨다.

Q : 괴산이라는 지역에 대한 생각은 어떠신가요?

A : 한반도의 중심, 중원대학교

괴산은 한반도의 중심에 위치해 있고 역사적으로 많은 선비들이 나왔다. 중원대학교 학생들 역시 중원에서 기틀을 닦아 뻗어 나갈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Q : 중원대학교 학생들의 첫 인상은 어떠셨나요?

A : 학생들이 인사성도 굉장히 밝고 순박해 보였다. 얼굴에 자신감이 넘치고 성실한 학교생활을 보내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을 받았다.

Q :앞으로 학교를 만들어 갈 비전은?

A : “작지만 강한 대학”

좋은 학생이 좋은 학교를 만든다. 좋은 학생이란 훌륭한 인성과 태도가 몸에 배어 있고, 말 한마디, 작은 행동 하나에서 인성이 묻어나야 한다. 좋은 학생을 만들기 위해 학생들의 가능성을 끌어올리고 훌륭한 인성을 바탕으로 한 전문인, 세계인을 육성시킬 것이다.

Q : 비전을 이루기 위해 어떻게 노력하실 계획이신가요?

1. 좋은 인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 시행
2. 이론과 현장을 접목 시킬 수 있는 기회 확대
3. 글로벌 사회 적응 능력 배양

A : 첫째, 좋은 인성을 가르치는 프로그램들을 만들 것이다.

학생들이 보다 나은 인성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둘째, 이론과 현장을 접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할 것이다.

이론을 학문적인 공부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현장에 접목 시킬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 튼튼한 학생들을 만들 것이다.

셋째, 글로벌 사회에서의 적응 능력을 기를 것이다.

Q : 재학생들과 미래의 신입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은?

A : 직·간접적인 만남을 통해 자아 정체성을 확고히 한 뒤,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항상 메모하는 습관을 길러서 결정적인 순간을 놓치지 마라.

“내가 우리나라에서 유럽을 거쳐 전 세계로 업무를 보면서 출장을 다닌다고 생각해 보자. 이 생각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벅차고 설레이는가?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위해 지금 나는 무엇을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인터뷰를 마치고

언론장학생이 선발되고 제일 처음 받은 과제가 ‘인터뷰 기사’였다. 교수님을 섭외할지, 학생들을 섭외할지 고민하던 중 이제 막 활동을 시작한 우리들 처럼 이번 년도 새로 부임하신 총장님을 뵙고 싶다는 의견으로 좁혀졌다. 아직 총장님을 뵌 적 없는 학생들도 많을 것이고 총장님이 어떤 식으로 학교를 이끌어 가실지, 또 어떤 분인지 학생인 우리가 직접 뵙는게 재밌을 것 같다는 의견도 나왔다.

4월 9일 총장님 집무실에서 인터뷰가 진행됐다. 총장님은 우리들이 편안하게 인터뷰 할 수 있도록 응대해 주셨다. 인터뷰가 진행되는 동안 총장님이라는 생각보다는 선생님이나 멘토에게 자기개발을 위한 강의를 듣는 시간처럼 되새길 수 있는 이야기들이 많았다.

안병환 총장님은 대진대학교 부총장, 교육대학원장, 중앙도서관장 등을 역임하셨고, 더 많은 학생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고 소통하고 싶다는 말씀도 전하셨다.

편집 : 임정완, 이주연 취재 : 배정민 / 최소윤 촬영 : 노신철 / 노은지

중원대학교 간호학과, 첫 나이팅게일 선서식 가져



중원대학교 의료보건대학 간호학과(학과장 윤정아 교수)는 12일 오전 11:00시 25명의 나이팅게일 예비 후예들이 첫번째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중원대학교 E-Hall에서 가졌다.

이번 행사는 안병환 총장 주관으로 충북간호사회 회장, 괴산군 보건소장을 포함한 의료보건대학 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촛불점화를 시작으로 나이팅게일 선서, 총장 식사, 의료보건대학장의 격려사, 충북간호사 회장의 축사 등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은 임상실습을 앞둔 학생간호사에게 선배간호사가 캡을 씌워주며 나이팅게일의 등불을 상징하는 촛불을 밝혀주고 선서하는 것이다.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하는 이유는 나이팅게일의 뒤를 이어 자신도 사람들을 성심껏 돌봐주는 간호사가 되겠다는 다짐을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하기 위해서다.

선서식을 앞둔 간호학과 3학년 김보나 학생은 "지난 2년 동안 소중하게 간호사의 꿈을 키워왔고, 이번 선서를 통해 임상실습을 나가게 되어 매우 설렌다"고 말한 뒤,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정신을 되새기고 의로운 전문 간호인으로서 간호를 받는 모든 사람들의 건강과 안녕을 위해 헌신할 것이다"라는 다짐도 잊지 않았다.

의료보건대학장 박안숙 교수(간호학과)는 "항상 자기 성찰을 통해 간호사로서의 본분 그리고 평정심을 다지고 또 다져야 한다"고 강조하고 "간호사가 된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따뜻함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참된 봉사를 하며 평생을 의롭게 살아 가는 것이라고"을 당부했다.

중원대학교 간호학과는 지난 2010년 8월, 교육부로부터 25명 정원으로 신설 승인을 받아 2011학년도 첫 신입생을 선발했으며 올해 30명으로 증원되었다. 신설 첫 해 부터 최고의 인기 학과로 자리 매김한 간호학과의 최고 경쟁율은 44.8대 1로, 최고의 인재들이 꾸준히 입학함으로써 지역 의료 인력난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편집부〉









정계-학계 -교육계 모인 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로 안병환 총장 선임

국민행복교육포럼 공동대표로 중원대학교 안병환총장이 선임되었다.

국민행복교육포럼은 '행복교육'을 목표로 정계, 학계, 교육계 인사 등 약 100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포럼으로 안병환 총장을 비롯해 한국교육개발원 구자억 선임연구위원, 신라대 김희규 교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안양옥 회장 등 4명이 공동대표로 나선다.

교육포럼은 4월 15일 오후 서울 중구 뉴국제호텔 세미나실에서 창립기자회견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앞으로 ▲공교육 정상화와 창의인재육성을 위한 이론, 정책방안 제시 ▲행복교육포럼 개최 ▲정부, 기업, 학교 간 네트워크 운영 ▲교사, 학부모 대상 연수 실시 ▲학회지 및 소식지 발간 등을 토대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포럼은 다음달 14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능력중심사회 실현을 위한 대학입시제도 개선방향과 과제'를 주제로 창립 기념 포럼을 개최할 예정이다. 또 주제별 분과를 구성, 체계적인 정책연구를 진행할 계획이다.

〈편집부〉



난계국악단 초청 연주회

중원 인성 교육프로그램 첫 공연



꽃이 만개하는 시기인 봄에 중원대학교에서는 학생들의 중원인성교육의 일환으로 난계국악단을 초청해 연주회를 가졌다. 문화함양 교육차 실시된 이번 공연은 상임지휘자 김재섭 기획 아래 난계국악단 연주자 17명이 플라이 투 더 스카이, 레잇 비, 오블라디 오블라다, 시크릿가든, 더랩, 판놀음, 프런티어, 멋으로 사는 세상, 축제 순으로곡을 연주했다.

난계국악단은 팝페라 가수 신문희가 우리나라 강산의 아름다움을 노래로 승화한 곡을 국악기로 재편곡을 한 플라이 투 더 스카이를 연주하며 중원대학교 강당에서 공연 시작을 알렸다.

이어 레잇 비, 오블라디 오블라다를 연주해 마치 1950년대 현장에 와 있는 듯한 감성을 자아냈다. 또 노르웨이의 2인조 혼성 밴드 시크릿가든이 유러비전 송 컨테스트에서 그랑프리를 수상해 유명하며, 귀에 익숙한 곡을 공연하여 학생들의 반응이 뜨거웠다.

이숙미 행정실장은 "중원대학교의 웅장한 시설에 놀랐으며 연주하는 동안 표현하는 학생들의 즉각적인 반응을 보고 타 대학에 비하여 연주 할 맛이 난다"는 말을 하며 아쉬움 속에서 축제라는 즐거운 곡으로 연주를 끝냈다.

공연이 끝난 후 중원대학교의 김성호 교무처장은 향후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창의성, 도덕성 등 모든 것을 종합한 인성을 가진 학생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교무처에서는 앞으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의 문화의식을 함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노은지 기자, shdms1x@naver.com〉

중원대-산림청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생약자원기술발전 MOU 체결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와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센터장 이갑연)가 4월 18일 산학협력단 대회의실에서 생약자원 연구와 개발, 응용을 위한 학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양 기관이 고부가가치인 생약자원에 대한 중요성과 유용성을 인식하고 효율적 연구, 개발과 응용을 위해 기술정보 및 인력교류, 업무연계 등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앞으로 양 기관은 ▲생약자원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수행 ▲기술개발의 협력, 연구관련 정보 및 기술의 교류 ▲관련 분야의 공동 심포지엄, 세미나 개최 및 전문분야에 대한 상호기술 자문 ▲소속구성원의 연구, 사업 및 교육훈련 등 다방면으로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갈 예정이다.

안병환 총장님은 "이번 협약을 통해 생약자원기술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정보교환 등 실질적인 활동이 연계되어 양 기관이 상호 발전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갑연 센터장 또한 "우리 양기관의 상호협력을 통해 연구를 활성화하고 유대를 강화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자"고 말했다.

또한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 괴산 유기가공식품산업 육성사업단(단장 김도완교수)과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도 유기가공식품의 개발 및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김도완 단장은 "유기가공산업인 유기식물자원, 천연색소, 천연감미료 등은 종자가 없이는 이뤄질 수 없는 분야입니다. 이렇게 협약을 갖게 되어 유기가공산업 기술 발전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고 말했다.

이번 협약으로 생약자원은 물론 유기가공식품 분야의 발전과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편집부〉

중원대-CJB 청주방송

산 · 학 협력 업무협약 체결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와 CJB 청주방송(회장 이두영)은 4월 24일, 대학정책홍보 및 방송기술교류를 위한 산·학 협력 업무협약을 중원대학교 교무회의실에서 체결하였다.

이번 업무협약으로 중원대와 CJB 청주방송은 중원대학교 재학생을 캠퍼스 리포터로 활용할 예정이며 방송 관련 학과들의 실습장 제공과 인턴십 프로그램을 진행하게 된다.

안병환 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중원대학교와 CJB 청주방송이 업무협약을 통해 산학협력은 물론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동시에 양 기관 간의 상생 전략이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두영 회장도 "중원대학교와 CJB 청주방송이 함께 산학협력을 통해 인재양성과 지역사회와 소통할 수 있는 매개체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이 날 행사는 안병환 총장과 이두영 회장을 비롯해 중원대 주요 보직자와 방송연예학과장, CJB 청주방송 이한목 편성제작국장이 참석했으며 특별히 CJB 청주방송 안정은 아나운서가 협약식 사회를 진행해 눈길을 모았다.

〈편집부〉

중원대 최고경영자과정 6기 입학식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지난 3월 13일 오후 7시 중원대학교 중원예관에서 안병환 총장과 각 기수별 회장, 임원진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최고경영자(CEO)과정 6기 입학식'을 가졌다.

입학식은 김도완 평생교육원장의 학사보고, 안 총장의 입학식사와 이차영 부군수의 축사에 이어 만찬 순으로 진행되었다. 안 총장은 입학식사를 통해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다양한 활동을 통한 소통과 친목으로 학교와 지역사회에 기여해 달라"고 했다. CEO과정 6기 입학생 24명은 공무원과 중견 및 중소기업 CEO, 자영업 대표 등 다양한 직업을 가진 원우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1년 동안 강의는 물론 최고경영자로서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전문 노하우를 공유하고 각종 문화 활동, 워크숍 등을 통해 친목을 도모한다. 중원대 최고경영자과정(CEO)은 지난 2010년 3월 개설되었으며, 현재 4기까지 113명의 수료생을 배출하였으며, 5기 과정에는 20명이 재학 중이다. 이들은 대학에 각종 발전기금을 기부하는 한편 총동문회를 구성, 학교발전과 지역사회를 위해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편집부〉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함께해요!

JUNGWON UNIVERSITY SNS

취업 정보, 이벤트 그리고 중원대 학우들의 다양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클릭해 보세요. 중원대학교 SNS

https://www.Facebook.com/jungwonuniv
http://me2Day.net/paolim
https://Twitter.com/jungwonUniv
http://blog.Naver.com/jwuackr



언론장학생 1기 노신철 작품



중원대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 가져





신입생 전원, 입학금 등 장학혜택 받아

학사 1,136명, 석사 16명 등 총 1,152명 입학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3월 4일(월) 대강당에서 재단 및 대학 관계자, 2013학년도 신입생, 학부모 등 1,8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식을 개최하였다.

입학식은 학사행렬 입장과 개식, 국민의례, 학사보고, 입학허가 선언, 내빈·보직자 소개, 대표선서, 장학보고, 중원 특별장학증서 및 상장수여, 이사장 격려사, 총장 입학식사, 축사, 교가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2013학년도 중원대는 임상병리학과와 태권도학과를 신설하며 학사과정 1,136명, 석사과정 16명 등 총 1,152명의 신입생이 입학하였다.

대진교육재단 이사장은 격려사를 통해 "인성과 재능을 발휘할 수 있는 참된 인재로 성장하면서 꿈과 이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 달라"고 당부했다.

안병환 총장은 환영사에서 "올바른 사람됨이 무엇보다 중요하고도 절실한 교육의 목표이며 과제"라며 "전문성은 물론 지성과 감성, 윤리와 도덕, 겸손과 배려, 사고력과 실천력,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에 입학한 중원대학교 신입생 전원이 입학금과 1년간 생활관 사용료 전액을 장학금 혜택으로 지원받았다.

〈편집부〉



김종호 · 양영호 (레저스포츠학과 1년), 양궁 국가대표 발탁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1학년 김종호, 양영호 학생이 지난 4월 17일에서 20일 충북보은에서 개최된 양궁 국가대표 3차 선발전에서 컴파운드 종목 국가대표로 선발됐다.

김종호 학생과 양영호 학생은 오는 5월 10일 중국 상해에서 개최하는 월드컵 1차 대회를 시작으로 4차 대회까지 실시하여 최종 파이널대회에 출전 할 예정이다.

파이널대회 종료 후에는 7월 터키 세계선수권대회와 11월 대만에서 열리는 아시아선수권대회에 출전 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김종호 학생과 양영호 학생은 학교는 물론 나라를 위해 열심히 훈련하겠다는 각오를 다졌다. 현재 두 학생은 진천 선수촌에서 훈련 중에 있다.

〈편집부〉

중원대학교 졸업식 현장 첫 학위 수여식!



2월은 많은 대학들의 졸업식이 있는 달이다. 특히 2월이 특별한 이유는 우리 중원대학교에서 첫 졸업생을 배출했기 때문이다.

중원대학교는 2009년 개교한 이래 2013년 2월 21일 첫 학위수여식을 가졌다. 이번 졸업식에서는 졸업생 92명, 석사 3명 등 총 92명의 졸업생을 배출했다. 졸업식은 모두에게 설렘과 기대로 다가오는 날로 중원대학교 첫 졸업식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중원대학교는 2013년 2월 21일 목요일 학교 대강당에서 졸업식을 가졌다. 학사 졸업생은 71%의 정규직 취업과 진학률을 보였고, 이 가운데 19명은 미국 대학원을 비롯한 서울대, 광주과학기술원(GIST) 등 국내외 주요 대학원 석사과정에 진학했다.

중원대학교는 2009년 3월 222명이 입학했고, 군 휴학과 일반 휴학 등을 제외한 재학생 89명이 학사학위를 받았다. 홍기형 총장은 졸업식사를 통해 "건학 이념인 성실 · 경건 · 신념을 실천하고, 아주 작은 일이라도 이웃을 돕고 사회를 밝게 하는 일에 앞장서 세계 속의 중원인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했다.

이 날 중원대학교 학위 수여식에서는 신재생에너지학과 박병학 학생이 수석 졸업의 영예를 안아 이사장상을 수상했고, 지이슬(의료공학과), 방아름(한방자원개발학과), 최예형(골프과학과), 송두리(사회복지학과), 이지원(의료정보행정학과) 학생이 총장상을 받았다.



중원대학교는 지난해 장학금 수혜율 전국 7위, 1인 교육비 전국 15위로 학생에게 투자를 아끼지 않고 있다. 또한 2011년에는 대학 교육역량 강화사업 대학에 선정되기도 했다. 중원대학교가 이런 업적을 남길 수 있었던 까닭은 학생들과 임직원들의 노력으로 만들어진 결과다.

중원대학교 졸업식에서는 특별상을 받은 학생들도 있다. 특히 고희를 넘은 여류 소설가 김이연(본명 김영자)씨가 사회복지학과를 졸업했다는 것이다. 1967년 문학 전문지 '동서춘추'에 단편 소설 '임부'로 신인상을 받아 등단했고, 신인상을 받는 자리에서 김이연 작가는 책 50권을 내겠다는 약속을 했다. 최근 50번째 저서인 장편소설 '남자의 순정'을 발간했고, 이날 졸업식 특별상을 받으며 "처음 약속한 대로 50번째 소설집을 냈으니 이젠 더 책을 내지 않겠다."라는 말을 전했다.

김이연 작가는 앞으로의 계획을 다른 일을 배우며 대학원에서 사회복지 정책을 더 공부해 선진국 수준의 노인복지 정책을 연구하고 싶다는 포부를 전했다. 또한 김이연 작가는 전교 2위의 성적을 거두는 등 남다른 열정으로 손자뻘 되는 동급생들과 후배들에게 귀감이 됐다.

김이연 작가는 이론적으로 행해지는 노인복지가 아닌 현장에서 공부하며 100% 복지를 누릴 길을 찾겠다는 각오를 마지막으로 전했다.

〈최소윤 기자, jd2326@naver.com〉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가진 인재 육성

학생군사학교장, 중원대학교 학생 대상 안보특강



지난 2013년 3월 19일, 대학생들의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한 국가안보 교육이 충북 과산에 위치한 중원대학교에서 이상현(소장) 학생군사학교장에 의해 실시되었다.

이번 강연은 중원대학교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을 위주로 진행되었으며,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갈 미래의 주역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관을 심어주기 위해 국가안보의 중요성과 현재 우리나라의 안보 실태와 한미 군사동맹의 중요성, 작전권 전환의 의미 등 진솔하고 현실적인 국가안보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최근 하루하루 북한과의 외줄 타는 듯 한 안보 상황에서 이상현 학교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우리 사회의 안녕과 질서 유지를 책임질 경찰이 되고자 하는 여러분들은 그 누구보다 투철한 국가관과 안보관을 갖춰야 한다."고 학생들에게 강조 하였으며, "여러분의 안보관이 바로 설 때 우리나라의 미래가 더욱 튼튼하고 발전할 수 있다고" 힘주어 말 했다.

이번 강연에 참석한 경찰행정학과 노하 학생(1학년)은 "국가안보에 대해 잘못 인식하고 있었던 게 참 많았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나라의 안보와 미국과의 관계를 제대로 인식할 수 있었다"는 소감을 이야기 했다. 또한 경찰행정학과 김진아 학생(1학년)은 "우리나라 정부가 북한을 어떻게 인식하는지, 추후 북한과의 관계에서 우리 군의 대응에 대해서도 알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는 소감을 밝혔다.

〈정회리 기자, hr411@naver.com〉

국제교류원 베트남 하노이 유학박람회 참가

세계속 명품 대학 발판 마련





중원대학교 국제교류원은 4.19부터 사흘간, 베트남 하노이 국제전시센터에서 열리는 2013 베트남 하노이 한국유학박람회에 참가했다.

총 42개 대학들이 참여한 이번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는 중원대학교의 홍보를 통해 유학생 유치기반을 확충하고 현지 대학 등과 국제교류 협력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특히, 중원대학교는 한국의 경쟁력과 장학금 혜택, 영어 특성화 시스템, 기숙사 시설, 취업, 등의 다양한 지원책을 내걸어 약 1,000여 명의 베트남 학생이 부스에 방문해 북새통을 이뤘다.

베트남의 한 학생은 현재 학교에서 공부중인 9명의 베트남 학생들의 활동을 보며 "깨끗하고 넓은 캠퍼스도 좋고 이런 곳에서 공부하기를 바랍니다."고 말했다.

송재두 국제교류원 원장은 "이렇게 베트남 학생들이 큰 관심을 보일 줄은 생각하지 못했다. 이번기회를 통해 외국인학생 유치는 물론 베트남과의 교육교류에 전환점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중원대학교는 이번 베트남 하노이 박람회를 통해 외국인 유학생 유치기반과, 세계 속의 명품국제 대학교가 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였다.

〈편집부〉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 내방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ship)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영어캠프(Camp Fulbright) 발전방안 논의



중원대학교 안병환 총장이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을 비롯한 관계관들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3월 28일 오전, 중원대학교(총장 안병환)는 한미교육위원단 심재옥 단장의 예방을 받고 환담을 가졌다.

이번 방문은 4년 동안 중원대에서 열린 풀브라이트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ship) 프로그램과 풀브라이트 영어캠프(Camp Fulbright)에 대한 지속적인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다.

Fulbright ETA(English Teaching Assistantship) 프로그램은 미국 정부의 풀브라이트 장학금 수혜자로서 한국 교육인적자원부와 협의하여 지정한 한국 초, 중, 고등학교에 배치되어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교사들을 양성하는 교육프로그램이다.

1992년 시작되어 매년 80여 명의 미국 원어민이 이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있으며 2010년부터 본교에서 7주간 영어교육방법과 한국어 및 지역문화체험 프로그램으로 진행되고 있다.

올 해 풀브라이트 ETA 프로그램 일정은 7월 6일부터 8월 16일까지이다.

〈편집부〉

레저스포츠학과 교수진, 아시아 수영 · 충북 체육계 주요 보직 맡아

노민상 교수(레저스포츠학과), 아시아 수영연맹 의무분과위원회 부위원장 임명
김화복 교수(레저스포츠학과), 충북체육회 이사 선임



김화복 교수

최근 중원대학교 레저스포츠학과 교수들이 아시아 수영과 충북체육계의 주요 보직에 임명되어 그 활약이 기대되고 있다.

노민상 교수(레저스포츠학과)가 아시아 수영연맹(AASF, AsiA Swimming Federation) 의무분과위원회(Medical Committee) 부위원장에 임명되었다.

대한수영연맹은 이번 임명이 한국 수영계에 큰 경사이며 한국인으로 아시아 수영연맹 분과위원회 부위원장에 임명된 것은 최초라고 밝혔다.

아시아 수영연맹는 총 9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 의무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이란의 닥터 파하드 모라디씨(의사)가 임명되었다.

한편 레저스포츠학과 김화복 교수는 충북체육회 여성이사로 선임되어 충북체육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활약을 펼칠 예정이다.

충북체육회는 4월 2일 임원선임을 위한 전형위원회를 통해 2017년 2월까지 4년간 충북체육을 이끌어 갈 회장단과 새 이사진을 확정했다.

〈편집부〉



노민상 교수



현장취재 I

2013년 농협 취업전략 세미나 개최



중원대학교는 2013년 4월 17일 교내에서, 농협 괴산군지부의 신현성 지부장을 모시고 '농협이 원하는 인재상' 이라는 주제로 농협 취업전략 세미나를 개최하였다.

학생처 취업지원팀에서는 재학생들의 취업준비와 진로탐색에 새로운 통찰을 제공하고자 2013년 Career Frontier Seminar를 기획해 진행하고 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오늘 세미나는 최근 지역인재 채용 우대의 큰 흐름에 발맞추어 농협 취업을 준비하는 재학생들이, 구체적인 농협 채용 절차를 이해하고 인 · 적성검사와 면접 준비 요령 등 체계적으로 취업을 준비하도록 마련된 것이다.

재학생 40여 명이 참석한 이날 세미나에서 신현성 지부장은 '진정성'을 강조하면서 "미리미리 준비할 것"을 당부하였다.

향후 학생처 취업지원팀에서는 농협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선발 과정을 거쳐 농협 괴산군 지부와 공동으로 멘토링 프로그램 등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취업 준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날, 신현성 지부장은 농협 채용에 국한된 얘기 뿐만이 아니라 취업을 준비하는 모든 재학생들에게 보다 도움이 되는 전반적인 면접요령과 마음가짐에 대해 강조했다.

신현성 지부장이 말하는 면접 요령 일곱 가지!

첫 번째, '솔' 톤으로 또박또박 말 할 것

면접관과의 거리가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어눌하게 말을 하거나 목소리가 작으면 면접관에게 전달이 잘 되지 않는다.

따라서 '솔'음으로 말하되, 또박또박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해야 한다.

신형선 지부장이 제안한 방법으로는, 실제로 면접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자신이 말하는 것을 녹음하여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 있다.

두 번째, 시선처리를 자연스럽게 할 것

눈을 마주치고 이야기해야 상대방이 자신의 말에 몰입할 수 있다.

계속 눈을 마주치며 대화하는 것이 부자연스럽다면, 면접관의 눈 → 인중 → 넥타이, 이렇게 시선처리를 하여 자연스러운 대화를 이어 나가자.

세 번째, Speech, 1분을 넘기지 말 것

어떠한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60초를 넘기게 되면, 그때부터 면접관은 지루함을 느낀다. 면접시간은 정해져 있고, 면접관들은 계속해서 이어지는 면접으로 인해 이미 피로를 느끼고 있다. 하물며, 그들은 면접 중간에 지원자의 얘기가 길어지면 제재하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효과적으로 자신의 얘기를 전달할 수 있을까?

결론부터 전달하자. 설명으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결론을 내리는 speech를 준비했는데, 면접관이 중간에 면접을 중단시켰다면? 그때부터 자신의 이야기를 다 하지 못 했다는 생각에 초조함과 불안감이 밀려와 다음으로 이어지는 질문에도 제대로 답을 하지 못 할 수 있다.

그러므로 결론을 먼저 전달하고 그 다음, 뒷받침 설명을 하는 speech를 준비 하도록 하자. 가령 1분이 넘어서 제재를 받았다고 해도 자신이 전달하고자 하는 요점을 이미 보여줬다면 그걸로 충분하다.

네 번째, Speech, 자신감 있게 할 것.

"저…", "그…", "음…", "~~ 인데요" 등의 습관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듣기에 불편하게 만들 뿐 아니라 면접관에게 '자신감 없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

따라서 불필요한 말은 하지 말고, 끝말은 "다"로 끝내서 '자신감 있는' 인상을 남기자.

다섯 번째, 앞에 서되 낮출 것.

집단토론으로 면접을 보는 경우, 자신의 그룹을 이끌어갈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주도권을 잡았다고 해서 토론 중간에 남을 비판하거나 감정적으로 발언을 하는 행위는 무조건 감점요인이 된다. 실제로, 시험점수가 1등인 지원자가 집단토론 면접을 볼 때 감정을 추스르지 못 하고 감정적으로 토론하는 모습을 보여 그것 하나로 면접에서 탈락하였다.

이처럼, 가장 앞에 서서 집단을 이끌되 자신을 낮추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 자신의 표정을 알고 있을 것.

"평소에 거울을 보며 말하는 연습을 하라", 신현성 지부장이 제안한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 중 하나다. 자신이 거울을 보며 말할 때 어떤 표정을 짓고 있는지, 보기 좋은지 그렇지 않은지 자신이 알아야 한다. 그래야 면접관 앞에서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끌어 갈 수 있다.

일곱 번째, 면접은 면접장 문을 여는 순간 시작.

면접관들은 지원자가 들어오는 순간부터 걸음걸이, 복장, 눈빛, 표정, 면접을 보는 내내 앉은 자세는 어떠한지 그리고 면접이 끝나가는 무렵에 지원자의 표정과 눈빛은 어떻게 달라졌는지 등 모든 것을 체크한다.

첫 등장이 면접 당락의 80%를 좌우한다.

신현성 지부장은 일곱 가지 면접 요령을 말하고 덧붙여 가장 하고 싶은 말이라며 다음의 실제 경험담을 이야기했다.

"어디에 있든 당장 준비하라. 실제로 고려대학생과 지방대학생이 면접을 봤는데, 고려대 남학생은 학교이름 하나만 믿고 "필요한 것을 알려주시면 무엇이든 준비 하겠습니다"는 식의 태도였고, 반면에 지방대 여학생은 "학교이름 빼고 토익, 일본어, 자격증 6개, 학점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식의 태도였다. 의견충돌 하나 없이 만장일치로 둘 중 한 사람이 뽑혔다.

비록 지방에 있는 대학교를 졸업했지만, 사회로 나가기 위해 고등학교 졸업 후 피나는 노력을 한 여학생이 합격되었다. 자신의 대학교가 "In 서울"에다가 명문대라고 하더라도 준비가 되어있지 않는 사람은 어디서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현성 지부장이 말하는 떨어지는 사람들의 특징!

첫째, 무조건 "나 뽑아주세요"

이 회사에 자신이 왜 필요한지는 어필하지 않고, 다짜고짜 뽑아달라는 식으로 면접을 보는 사람들은 몇 번을 지원해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반대로 자신을 안 뽑으면 후회할거라는 식의 자신감 있는 태도를 보이자.

둘째, 얌전히 대답만 하지 말것.

누구나 적극적인 사람에게 호감을 느낀다.

셋째, 동문서답

질문의 요지를 파악하지 못 하고 계속 다른 이야기를 하는 지원자는 면접관을 지치게 만든다. 이해가 안 되면 다시 물어보고, 제대로 답하도록 하자.

넷째, 감정적인 태도

가끔 면접관들은 고의적으로 공격적인 면접을 보기도 한다. 이 지원자가 쉽게 흥분하는 성격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이다. 끝까지 차분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면접관 앞에서는 꾸밈없는 자신이 평소에 해온 그대로의 모습 바로 그 '진정성'을 보여주는 것이 가장 좋은 태도다"라고 말하며 면접요령에 대해 정리했다.

덧붙여, "자신이 희망 하는 분야의 전문지, 경제지를 1년 동안 파일로 정리해가며 본다면 그 분야에 대한 안목이 생길 것이다." 라고 하였다.

취업 강연이 끝날 무렵 신현성 지부장이 마지막으로 재학생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했다.

"견득사의, 절대 공짜는 없다. 무엇이든지 의롭게 얻자"

〈배정민 기자, bjm2706@naver.com〉

연재 I

백평구 교수의 취업스케치①

인재로서의 스토리 메이킹



백평구 교수
(기업경영학과)

시대에 따라, 세태에 따라 참 많은 유행어가 등장하고 사라지는 것을 반복하지만 최근에 많은 사람들이 스토리텔링이라는 용어를 유독 많이 사용하는 것을 심심치 않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중원인의 취업준비에 대한 소박한 제안을 하되, 스토리텔링에 대한 전문가 행세를 하고 그 심오한 의미를 알기 쉽게 전달하려는 의도는 없습니다. 이 글의 의도를 보다 정확하게 드러내 보이자면, 저는 오늘 기업의 '인재상'과 여러분의 자기소개서에 담기는 '스토리'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기업들이 표방하는 인재상에 대한 합의된 의미는 없겠습니다만, 대체로 그 기업이 바람직한 것으로 간주하고, 성장과 발전에 기여할 가능성이 높은 구성원의 특성을 함축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 가을경에 국내 상장기업들 가운데 시가총액 기준으로 상위 20개 정도의 회사들이 홈페이지를 통해 제시한 인재상의 키워드들을 전부 정리해 본 적이 있습니다. 또 몇 해 전에 산업 및 조직심리학이라는 경영학 관련 분야를 연구하는 타 대학의 교수님도 유사한 방식으로 매출액 기준 국내 300대 주요 기업의 인재상 10대 주요 키워드를 도출하는 연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매출액 기준 국내 100대 기업의 인재상을 분석한 결과, 전문성(Specialty), 창의성(Unconventionality), 도전정신(Pioneer), 도덕성(Ethicality), 주인의식(Responsibility)이 강조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앞 글자만 따서 표현하면 '슈퍼(SUPER)맨'이 됩니다.

흥미롭게도 각각의 기업들이 표방하는 너무나 많을 것만 같은 인재상 키워드들은 상당 부분 공통적이고 10개 정도로 충분히 수렴될 수 있다는 것이 제가 얻은 결론이었습니다. 중원인을 위해 10대 인재상 키워드를 소개하자면 창의, 전문, 도전, 글로벌 역량, 협력, 열정, 고객지향, 혁신, 변화, 책임감과 같습니다.

신입생부터 졸업반까지 이제 여러분이 고민해야 할 과제는, 그리고 그 과제를 해결하는 방식으로 만들어 갈 여러분의 대학생활은 '내가 인재상 키워드에 어울리는 어떤 스토리를 만드는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가령 '나는 창의적인 사람이다'라는 것을 어필할 수 있는 이야기, 그 이야기가 대학 생활을 통해 만들어지고 결국 그 이야기가 취업을 위한 자기소개서나 면접 과정에서도 드러나야만 합니다. 특별히 자기소개서라면, 창의와 관련된 지나간 나의 과거 경험이나 이력을 단순한 팩트로 나열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분량의 글 속에서 상대방(기업 채용담당자)이 마치 이야기처럼 느끼도록 정리하는 것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20대의 가장 큰 임무는 자신만의 고유한 특성을 찾아내고 이후에 설령 바뀔지언정 거기에 확신을 가져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감히 말씀드리고 싶은 중원인 '3무(無) 캠페인'이 있습니다. 중원대에서의 대학생활 동안 단 한 순간도 무료해하지 말고, 무기력해하지 말고, 어느 것 하나 무의미하다고 생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가끔 저와 페친(페이스북 친구)인 여러분들이 남긴 메시지에 나타나는 심심하다거나 시간을 때워야만 한다는 표현을 볼 때마다 아쉬움을 느낀 적이 있었습니다. 취업을 위한 스펙을 쌓아야 하니 세상과는, 다른 사람들과는 담을 쌓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인재상에 비추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표현하는 스토리를 중원대에서 만들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응원합니다.

Do Something! 감사합니다!

어학연수 준비 어떻게 할까?

많은 대학생들이 어학연수를 준비한다. 그렇다면 어학연수를 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취업을 위해 스펙을 쌓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다. 어학연수는 이제 대학생 사이에서 보편화 되면서, 경쟁력 있는 수단이 되지 못하고 있다. 어학연수는 자신만의 무기를 만들고자 떠나는 경우가 많은데, 어학연수가 보편화된 이때 자신에게 맞는 어학연수 계획을 준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어학연수 준비, 어떻게 해야 할까?

나의 진로는 무엇일까?

어학연수를 준비할 때에는 우선 어학연수가 본인에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봐야 한다. 어학연수를 떠나는 이유가 명확하고 구체적인 목표는 무엇인지 득과 실이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꼼꼼히 생각해 봐야 한다. 구체적인 목표가 없는 어학연수는 실패로 끝날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다. 어학연수를 가기만 한다고 무조건 좋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신의 진로와, 어학연수를 통해 나의 미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할 때 선택하는 것이 좋다. 목표와 나의 진로를 고민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어학연수를 다시 한 번 생각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어학연수 기관들은 영어과정 뿐만 아니라 토익(TOEIC), 토플(TOEFL), 아이엘츠(IELTS), 캠브리지(Cambrige)와 같은 시험 대비 과정에서부터 대학 진학을 위한 SAT, 대학예비과정(Foundation Course), 비즈니스과정 등 다양한 코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어학과정들이 어학연수 후에 혹은 대학 졸업 후 진로에 꼭 필요한 부분인지, 필요하다면 어떤 학교가 가장 적합한지 꼼꼼히 찾아보고 어학연수를 준비하는 계획이 필요하다.

적정 예산 책정하기

영국의 경우만 하더라도 약 1,000여 개의 공식, 비공식 어학연수 기관이 있다. 기관이 많은 만큼 학비 분포가 천차만별이어서 36주 동안 어학연수를 받는다고 가정 했을 때 한화로 약 300만 원에서 2500만 원까지 다양한 수업료가 소요된다. 일반적으로 학교 수준은 학비와 관련 있기 때문에 본인이 예상하는 학비와 가고자 하는 학교의 학비가 얼마인지 신중히 생각해보는 것이 좋다.

문화 이해하기

한국에서 자연스럽게 행동했던 것들이 외국에서는 예의에 어긋나거나 현지 문화와 맞지 않을 수 있다. 때문에 어학연수 가기 전에 해당 국가의 문화와 국민 특성을 이해하는데 도움될 만한 책, 인터넷 정보를 미리 찾아보는 것이 좋다. 이는 현지에서 언어를 배우고, 외국인 친구를 사귀는데도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다.



장점을 살린 지역 선택하기

어학연수지는 보통 지역과 대도시로 구분되는데, 대도시의 경우 학교가 많기 때문에 학교 선택의 폭이 넓다. 인구가 많이 몰리는 만큼 학교, 숙소, 여행, 생활 정보가 많고 다양한 국적의 사람을 만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물가가 상대적으로 비싼 편에 속한다. 반면 지방의 경우 물가가 저렴하고 비교적 한가롭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한국유학생이 많지 않아 현지 원어민, 외국 유학생과 교제하며 영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의 성향과 생활방식을 충분히 고려해 지역을 선택하는 것이 어학연수의 효과를 극대화 할 수 있는 어학연수 준비방법이다.

영어 공부는 미리미리

어학연수를 준비하다 보면 이것저것 챙겨야 할 것도 많아서 눈 깜짝 할 사이에 시간이 흐른다. 그러다 보면 영어는 '가서 열심히 해야지'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어학연수는 비행기에 내리는 그 순간부터 모든 것이 영어로 표기되어 있고, 의사소통도 영어로 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적인 영어회화 실력은 갖추고 어학연수를 떠나야 한다.

〈편집부〉

중원대, 식품업체 취업희망자 실무인력 국비무료 교육생 모집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은 식품 업체 취업 희망자와 베이비부머 세대, 영세 자영업자, 다문화가족, 귀농귀촌자, 미취업자 등을 대상으로 괴산 관내 식품업체 및 유기식품산업단지, 발효식품농공단지에 입주하게 될 식품가공업체에서 요구하는 실무 인력을 양성하기 위한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과정을 마련해 교육생을 모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집인원은 총 30명으로 생산현장 인력 20명, 전문대 졸업 이상의 전문인력 10명이며 모집기간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로 한달 간이다.

교육기간은 생산현장 인력의 경우 5월 6일 개강해 5개월 과정을 이수하게 되고 직업소양교육과 위생, 안전교육 등 식품 및 바이오 기업 내 현장과 품질관리 실무 기초를 배우게 된다.

전문인력은 6월 17일 개강의 3개월 과정이며 유기원료, 가공 및 관련 산업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받는다.

두 과정의 교육시간은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5시간의 교육을 받게 된다.

이번 지역 맞춤형 일자리 창출 교육생들에게는 전액 국비로 중식과 교재비를 지원하고 교육수료자에 대한 취업 알선과 해당 업종 현장실무를 지원한다.

교육생에 모집 및 접수는 중원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방문해서 접수하면 된다. 방문 전 중원대 산학협력단 지역 맞춤형 일자리 담당자에게(☎ 043-830-8450)로 문의하면 된다.



유망직종 엿보기 – 운동처방사


유현승 교수
(스포츠건강의학과)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도 1학기부터 의료보건학부 스포츠건강의학과에서 스포츠재활 전공으로 학생들을 지도하게 된 유현승입니다.

저는 이곳 중원대학교에 오기 전 대통령경호실 체력관리센터에서 경호요원들의 선발과정과 경호체력훈련, 그리고 훈련이나 업무 중 부상자에 대한 응급조치와 재활치료 등의 업무를 하는 체력담당 선임교관 생활을 14년 동안 하였습니다.

또한 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에서 선수재활 트레이닝 업무를 2년 6개월간 전담하였습니다. 이때는 국가대표 선수들과 현대그룹 관련 프로 스포츠팀 야구, 축구, 농구, 배구, 아이스하키, 씨름 등 각종 선수들의 부상 후 재활치료 프로그램을 전담하였습니다.

과거 대통령 경호실 재임 기간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로는 VIP의 건강관리를 위해 업무를 하였을 때와 훈련도중 부상을 입은 직원들이 수술 후 재활치료를 받고 현장으로 근무복귀 시킬 때가 가장 기억에 남습니다.

경호요원들은 기본적으로 체력과 무도, 그리고 사격 등의 훈련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과격한 신체 활동을 하다보면 부상은 일상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빠른 응급조치를 하여 병원으로 후송시키고 병원에서의 치료 종료 후에는 재활치료를 제가 직접 전담하여 부상자들이 빠르게 현장복귀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스포츠건강의학이란 학문을 전공하여 현장에서 17년 정도의 업무를 경험하면서 운동프로그램 진행으로 회복되는 몸 상태에 대상자들이 만족을 느꼈을 때가 가장 큰 보람이었지 않나 생각합니다.

최근 리쿠르트 자료에 의하면 미래의 유망직종 50위권 이내에 호스피스 전문간호사, 운동처방사, 물리치료사, 음악치료사 등의 건강관련 직업군들이 상위에 랭크되어 있었습니다.

이중에서도 운동처방사는 치료대상에 따라 세분화되어지기도 합니다.

우선 건강한 일반인을 대상으로 보다 건강한 일상생활을 추구할 수 있도록 운동을 지도해 주는 분야로 일반 헬스클럽이나 퍼스널 트레이닝 분야에서 많이 분들이 활동하고 있고, 두 번째는 각종 성인병 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심장질환, 비만 등)의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을 지도해 주는 분야로 병원의 스포츠 의학센터나 보건소 등에서 운동처방사로 많은 분들이 활동을 하고 있으며, 세 번째로 각종 스포츠 현장에서 나타나는 부상을 예방하고 치료를 목적으로 운동을 지도해 주는 스포츠재활트레이너는 국가대표팀과 각 프로구단, 중·고·대학 팀 등에서 많은 분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기관 주요행정부처(청와대, 국가정보원, 행정안전부, 감사원, 보건복지부, 각 군 사관학교, 경찰청 등)에서도 직원들의 건강과 체력관리를 목적으로 운동처방사를 채용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곳 중원대학교로 임용된 지 이제 두 달 가량이 지났습니다.

제가 본 중원대학교 스포츠건강의학과는 위에 언급된 운동처방사의 양성을 위해 다양한 교과과정이 만들어져 있고, 저를 포함하여 다섯 분의 교수님들이 열과 성을 다해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약력 : 전/서울아산병원 스포츠건강의학센터 운동처방사, 대통령경호실 체력담당 선임교관
현/대한동계스포츠포럼 스포츠의학 분과의원, 대한노인건강협회이사, 대한운동사협회이사, 충북체육포럼이사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잊지 말고 신청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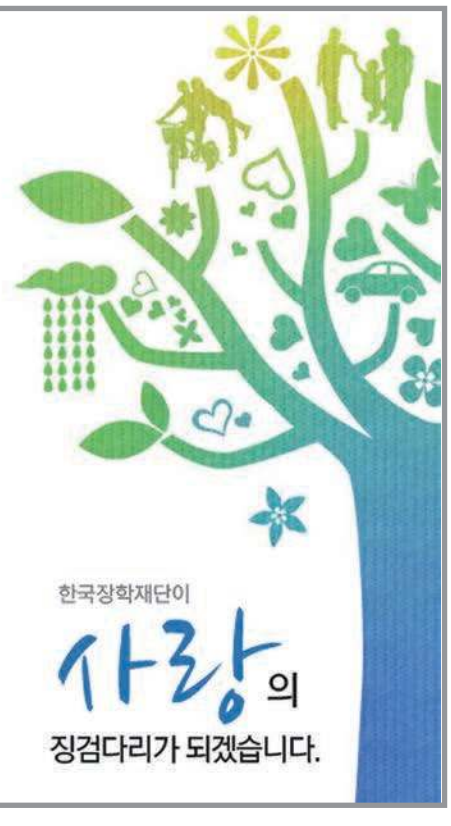
경제적 여건에 관계없이 누구나 의지와 능력에 따라 고등교육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장학금 제도!!
등록금 부담완화를 기본방향으로 총 2조 7,750억 원 규모의 국가장학금(Ⅰ, Ⅱ유형)을 대학생에게 지원

■ 대상 : 소득 8분위 이하
■ 일부 유형의 경우 대학의 자체노력과 연계하여 지원





※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하세요!!
홈페이지(http://www.kosaf.go.kr)→장학금 안내→장학금 소개→국가장학금(Ⅰ, Ⅱ유형)



그래도 마셔야겠다면...



황태영 교수
(한방식품산업학과)

진작 알았다면 결코 마시지 않았을 음료의 불편한 진실

저자 황 태 영

나도 사람인데 왜 마시고 싶은 게 없으며 또 안 마실 수 없을 때도 있다. 하지만 그 때마다 내 몸 상태를 생각하며 마신다. 내가 특별히 확인하는 영양성분은 '당'이다. '꼭 필요하지 않으나 먹게 되는 음료'를 통해 내 몸의 당 조절기관이 쓸데없이 무리하지 않았으면 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찜찜하지만 부득이하게 음료를 마셔야 하는 상황에서 조금 더 건강한 음료 섭취를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책 속에서 이야기 했던, 그래도 마셔야 한다면 챙겨야 할 것들에 대해 이야기 해보자.

음료는 습관이다! 물을 마시자!

음료보다 물을 마시게 되면 섭취하는 열량이 준다. 당분이나 기타 식품첨가물을 굳이 먹지 않을 수도 있다. 생각 없이 습관처럼 마시는 음료만 물로 대체해도, 당뇨, 비만, 심장병, 통풍, 간질환, 충치같은 각종 질환으로부터 한 발자국 멀어질 수 있다.

물은 인체가 원하는 최상의 음료다.

암 약한 엄마가 아이에게 음료를 사준다.

아이의 음료 습관을 바로 잡아주는 것은 부모의 책임이다. 아이들이 달콤한 음료를 좋아하는 것은 본능에 가깝기 때문에 입맛이 끌리는 대로 먹다보면 달콤한 음료로부터 빠져나올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부터 맛을 들이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바뀌어야 한다. 아이에게 음료 금지령을 내리기 전에 본인부터 아이들 앞에서 음료 마시는 모습을 보이지 않아야 한다.

포장지 앞면 말고, 뒷면의 라벨을 읽어라!

음료를 굳이 먹어야겠다면, 포장 앞면에 적혀 있는 큼지막한 선전 문구보다는 뒷면에 깨알 같이 적혀 있는 글씨를 읽어야 한다. 소비자가 알아야 될 정보의 대부분은 뒷면에 쓰여 있다. 식품 첨가물을 일일이 확인하는 것이 어려우므로, 뭐가 안 들어갔는지를 확인하는 게 빠르다. 내가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합성보존료와 착향료, 그리고 색소다. 가공식품 제조 공정상 식품첨가물들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어렵지만, 보존료와 착향료, 색소는 식품 회사의 의지에 따라 얼마든지 '무첨가'가 가능하다.

마지막으로 식품 라벨에서 확인해야 할 것은 영양성분표시다. 특히 당뇨 환자나 체중관리가 필요한 사람들에게 당류 함량은 매우 중요하다. WHO(세계보건기구) 당섭취 권고량은 하루 섭취 열량의 10% 미만으로 성인의 경우 50g, 어린이의 경우 35g 미만이다.



그래도 마셔야겠다면 최선의 선택을 해라

첫 번째, 제대로 가격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하자.

용량은 많고 가격은 저렴한 제품을 사는 것이 합리적인 소비라고 생각했다면, 식품에서만큼은 접어두자. 같은 종류라면 되도록 가격이 비싼 게 좋다.

첨가물을 적게 사용하려면 좋은 원료, 최신식 설비가 필요하다. 착향료와 색소를 적게 넣기 위해서는 원료품질이 좋아야 하고, 합성보존제를 제거하기 위해서는 무균충전 방식을 도입하거나, 제조부터 유통까지 냉장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 이렇게 좋은 재료와 생산 시스템은 모두 비싸다. 제품의 가격은 올라갈 수밖에 없다. 그러니 좋은 제품을 원한다면 그에 걸맞는 가격을 지불할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

두 번째, 보관 상태는 기본 중의 기본이다.

'직사광선을 피해 서늘한 곳에 보관하십시오.' 상온유통제품에는 대부분 이런 문구가 쓰여 있다. 하지만 최소한의 상식도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다. 생수 배달차가 땡볕에 생수통을 실은 채 달려간다. 생수통이 몇 시간이나 그렇게 직사광선에 노출되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다.

현재 페트병의 안전성에 대해서는 햇빛에 노출되면 발암물질 등이 용출된다는 것이 정설로 굳어가고 있다. 상온 유통 제품일지라도, 높은 온도는 용기에 담긴 음료의 품질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나는 되도록 보관상태가 좋은 곳에서 구입하는 편이다.

개인적으로 가장 주의하는 것은 온장고에 들어 있는 음료다. 특히 캔 음료의 경우,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A가 용출될 수 있기 때문에 마시지 않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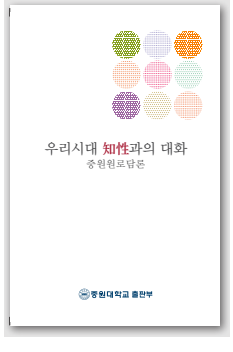
세 번째, 좋아하는 한 가지 음료만 마시지 마라

식품에 있어서만큼은 한 가지에 '꽂히지' 않기를 바란다. 특정 성분이 장복이나 과량 섭취로 인해 내 몸에 축적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생수만 해도 생산지마다 미네랄의 성분 차이가 있는데, 장복하다보면 특정 성분이 축적되어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다른 음료도 마찬가지다. 비타민이든 유기농 음료든 아무리 좋은 것도 하나만 고집하지 말고, 꼭 마셔야겠다면 여러 회사의 제품을 번갈아가며 마시는 것이 나만의 요령이라면 요령이다.

중원인 책 소개

우리시대 知性과의 대화_중원원로담론



「우리시대 지성과의 대화-중원원로담론」은 중원대학교를 위해 자문해 주시는 원로모임 JPC(Jungwon Pine Club) 회원 분들의 글을 모아 발간한 책이다.

학계 및 교육계 등 각 분야에서 학문 발전에 업적을 쌓아 오신 원로들의 정기적인 모임을 통해 한국사회는 물론 학교 발전을 위한 논의의 성과를 한 데 모은 것이다.

호주 그리피스대학교 석좌교수 및 한국학연구소 소장인 권오율, 전 주튀니지 대사 김경임, 전 주네덜란드대사 이며 한국외교협회 회장 김용규, 한양대학교 이사장 김종량, 서울대 명예교수 김형국, 학술원 원장 박영식, 연세대 명예교수 송복, 전 교육부장관 윤형섭, 전 교육부장관 이돈희, 수당 기념관장 이문원,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상주, 교수신문사 발행인 이영수, 한국경제학회 명예회장 이종훈, 동원대학교 이사장 이택휘,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원장 정길생, 전 한림대 총장 정범모, 전 중원대 총장 홍기형, 총 17명 원로들의 글들을 이 책에 소중히 담았다. 교육학자들답게 우리나라 교육의 문제점에 따른 진단과 처방을 담고 있으며 그 외의 현 시대의 문제점을 이해하기 쉽게 에세이 식으로 풀어 쓴 글들도 포함되어 있다.

책 구입문의 : 043-830-8074(담당자-이주연)

중원신보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로 만들어집니다.

학생 및 교내 구성원들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
학보에 실고자하는 자신의 글, 그림(캠페인포스터, 카툰)
어떤 장르에 구애받지 않고 홍보실로 보내주세요~~
채택된 글이나 그림은 학보에 실리게 됩니다.^^

보내실 곳

교직원 →웹메일 : zooyeun@jwu.ac.kr(담당자:이주연) TEL : 043)830-8074
중원대학생 →김보라cs2249@naver.com, 최소윤monosy91@gmail.com
정희리hr411@naver.com, 배정민bjm2706@naver.com
노은지shdms1x@naver.com, 노신철sin4857@daum.net

인물스케치 |

동 · 하계 스포츠를 제패한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는 2012년 런던 패럴림픽 지적장애인 부분 수영에 출전하면서 동메달을 획득하는 쾌거를 이루며, '패럴림픽 수영의 박태환'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지금, 바로 중원대학교에서 조원상 선수의 겨울날개 짓이 시작되고 있다. 조원상 선수는 29일에 개막하는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에도 출전하게 되었고, 이번 출전 종목은 '스키 크로스 컨트리' 이다.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는 작년 열린 동계 스페셜올림픽 프레대회에 출전한 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지금부터 그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조원상 선수의 History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는 네 살이 되도록 제대로 말을 못했다. 1996년 초 대학 병원에서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장애(ADHD)와 지적장애 2급 판정을 받았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나서는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았고, 그 상처로 "장애인 끊어 달라"고 떼를 쓰기도 했다. 지능지수가 50이 채 안 됐던 조원상 선수는, 지적장애 역시 끊으면 다른 친구들과 같아질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었다.

그런 그가 수영과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재능을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은 그의 초등학생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나서야 알 수 있었다.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는 초등학교 6학년 때 스키 크로스컨트리에 입문했다. 일반 특기생들과 강원도로 석 달간 합숙 훈련을 떠나게 되었는데, 조원상 선수는, 집 그리고 가족과 떨어져 있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훈련을 마치고 돌아온 그는 "크로스컨트리 끊으면 안돼요?"라고 말하며 그간의 사정을 털어놓았다. 일반 특기생들과 함께한 훈련이기 때문에 합숙 기간 중 따돌림을 당하고 억지로 화장실 청소를 하게 되었다고 한다. 이처럼 조원상 선수가 자신을 세상에 알리는 과정에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를 극복하기 위해 운동을 시작했지만 또 한 번 큰 아픔을 겪은 그는 4년 넘게 했던 수영도 그만두게 되었다. 특수학교가 아닌 일반 중학교로 진학하게 되면서 따돌림은 더욱 심해졌다. 그의 교복은 몇몇 아이들의 낙서장이 됐고, 날마다 폭력을 당해 코피를 흘리고 오는 일도 비일비재했다. 그렇게 힘든 나날을 보내며 맞이한 3학년 가을, 그는 수영을 하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날 이후부터 새로운 인생이 시작 되었다. 수영을 처음 배우던 그때보다 더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노력한 조원상 선수는, 그렇게 지금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 크로스컨트리 금메달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는 4일 열린 평창 알펜시아 크로스컨트리 경기장에서 열린 스키 크로스컨트리 1km 남자 3디비전에서 2분 38초 07을 기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그는 중학교 입학 전 스키 크로스컨트리를 시작해 동계장애인체전에서는 우승을 도맡아 했었다. 그는 동 · 하계 대표 종목에서 두각을 나타내며, 명실상부 스포츠분야 1위 선수로 자리매김하게 되었다. 이렇듯, 그는 한곳에서 머무르지 않고 세계무대를 제패하게 되었다. 앞으로 중원대학교 조원상 선수에게 밝은 미래가 가득하길 바란다.

〈배정민 기자, bjm2706@naver.com〉





단과대학 소개

믿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는 이공대 학생회

구성원 : 회장(이현준), 부회장(이온희), 이공대 소속 학과 총과대 10명(정봉진, 손명진, 구관모, 안효원, 이강토, 김미정, 이동운, 정석원, 심태식, 유상원)

집행부 : 손명진, 정봉진, 안효원, 이동운, 심태식

저희 이공대는 총 12명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져있고, 한방산업학부의 경우 두 개의 과를 한분께서 대표하시고 계십니다. 그 외 집행부의 경우 구성원에서 자발적으로 자원해주신 다섯 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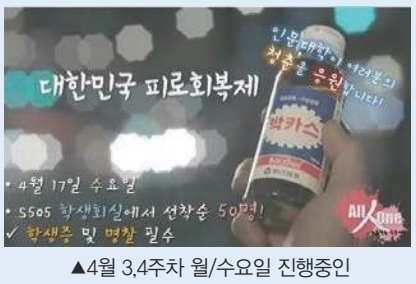
저희가 현재 진행중인 사항으로는 이공대 및 전체 체전 준비를 위한 물품 준비, 취업진로 관련 서적과 전문 서적 추가 배치, 단대 방 캐비닛 및 필요물품 구비, 공모전과 같은 취업 당시 스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자료 공지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행하였으나 실패했던 사항으로는 여행자 보험이 있습니다. 현재 학기초이기 때문에 진행이 더딘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완벽하게 완료된 사항은 없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일 처리에 능숙해지고 속도가 붙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공대를 위해 할 수 있는 많은 일들을 진행하여 이공대 학생 여러분들이 이학기에도 믿음을 갖고 따라올 수 있는 이공대 학생회가 되겠습니다.

소통하는 인문대학 All人One

저희 중원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은 기존의 인문학부, 사회과학부, 국제비즈니스학부가 합쳐진 9개학과 (인문학부, 사회복지학과, 법학과, 기업경영학과, 경찰행정학과, 영미통상학과, 일본통상학과, 러시아통상학과, 중국통상학과)가 함께하고 있습니다.

ALL人ONE 의 이름으로 2013년 첫 출범하였으며 회장, 부회장 아래 기획재정부, 교육부, 홍보부, 정보부 총 4개의 집행부서로 구성되어있습니다.

인문대학 올인원의 가장 큰 슬로건인 '소통하는 인문대학'을 따라 현재 인문대학 커뮤니티 (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humanjwu, 페이스북 페이지)를 개설하여 인문대학 공지사항, 회의록, 예산안 등을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 중이고, 이와 더불어 인문사회과학대학 내 모든 교수님들 강의자료실을 만들어 교수님들의 강의자료 및 학생들이 발표/과제 자료를 업로드 하여 서로 간에 공유를 할 수 있도록 진행 중입니다.



▲4월 3,4주차 월/수요일 진행중인 시험기간 인문대 청춘 응원 이벤트 [힘내세요~ 박카스!!]



▲인문사회과학대학 카페 공지사항, 강의자료실, 지역연계사업 등 게시

시험기간 등 청춘을 응원하는 슬로건(청춘은 뭘 해도 멋진 것이다./인문대학생회가 당신의 청춘을 응원합니다.)으로 학생들에게 시험기간 응원이벤트를 진행하여 많은 학생들이 재미도 느끼고 인문대학 학생회도 알리는 일석이조의 활동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부에서 주최하는 지역연계사업은 사회복지학과를 비롯하여 여러 학과가 괴산 내 아동에게 학습봉사를 하고 있으며 각 학과에 맞는 취업정보 및 공모전을 조사하여 인문대학 학우들에게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스포츠 센터 이용시간 및 요금안내

휘트니스	재학생	1개월= 10,000원
		2개월= 20,000원
		3개월= 27,000원
	교원/학군교	1개월=10,000원
		2개월=20,000원
		3개월=27,000원
	후원	1개월=60,000원
		2개월=120,000원
		3개월=162,000원
실내골프	재학생	1개월=20,000원
		2개월=40,000원
		3개월=54,000원
	교원/학군교	1개월=30,000원
		2개월=60,000원
		3개월=81,000원
	후원	1개월=100,000원
		2개월=200,000원
		3개월=270,000원
게임룸	재학생	9홀= 3,000원
		18홀=5,000원
	교원/학군교	9홀= 5,000원
		18홀=8,000원
	후원	9홀= 8,000원
		18홀=15,000원
평일(월-금) 오전6시~오후22시30분		
일(토/일/공휴일) 오전 08시~18시		
둘째주, 넷째주 일요일 휴무		

문의 043)830-8729

한국어학당 외국인학생
한지만들기 체험





4월을 맞아 2013. 4. 5일 국제교류원 한국어학당에서는 외국인학생들에게 한국문화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충북 괴산군 연풍면, 경북 문경시 문경읍에 위치한 조령산을 방문하여 한지 공예와 도자기 만들기 시간을 가졌다. 연필꽂이, 머그컵, 호리병, 접시 등, 한지 및 도자기 공예 시간을 가져 직접 만드는 체험시간을 가졌다.

중원대에서는 외국인 학생들의 유학생활 적응과 이해를 돕기 위해 매달 1번씩 한국문화탐방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편집부〉

우리는 중원의 제1기 학생기자!


최소윤_사회복지학과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언론장학생 1기 취재 기자로 선발된 사회복지학과 10학번 최소윤입니다. 부족한 부분이 많겠지만 동아리 회장과 다양한 대외 활동 경험을 살려 많은 정보를 알려드릴 수 있도록 활발하게 활동하겠습니다.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학교신문을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혹시 스노우보드나 웨이크보드에 관심 있으신 분도 연락주세요! 잘 부탁드립니다.
〈최소윤기자-사회복지학과10, jd2326@naver.com〉


김보라_산업디자인학과 4학년

꿈과 희망과 과제 마감이 넘쳐나는 산디과 4학년 김보라입니다. 어느새 졸업예정생이 되어서 졸업작품전 준비하랴 학보 만드랴 신나게 바쁘네요! 바쁜 만큼 더 보람찬 학기를 보낼 수 있을 거라 믿습니다. 포스터와 광고, 현수막 위주로 디자인 작업을 하며 학보 만들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자는 걸 좋아하고 예쁜 걸 좋아해서 디자인 작업에 연일 난항이지만 힘내고 있습니다. 완성된 학보를 읽는 분들이 즐거우셨으면 좋겠네요. 긴 글 읽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보라기자-산업디자인학과10, cs2249@naver.com〉


정회리_영미통상학과3학년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언론장학생에 선발 돼 앞으로 1년 동안 중원대학교 신문에서 취재를 맡게 된 영미통상학과 11학번 정회리입니다. 제가 언론장학생에 지원하게 된 가장 큰 동기는 신문을 통해 대외적으로 우리학교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서였고, 또한 학우들에게 지난 3년이라는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면서 터득한 생활정보, 앞으로 도움이 될 공모전 등의 여러 가지 정보들까지 모두 공유 하고 싶은 마음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다가올 체전, 축제 등 여러 가지 크고 작은 행사를 비롯한 소소한 정보까지 신문을 통해 모두 공유하여 전달하고, 소통 할 수 있는 소통의 창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회리기자-영미통상학과11, hr411@naver.com〉


배정민_기업경영학과2학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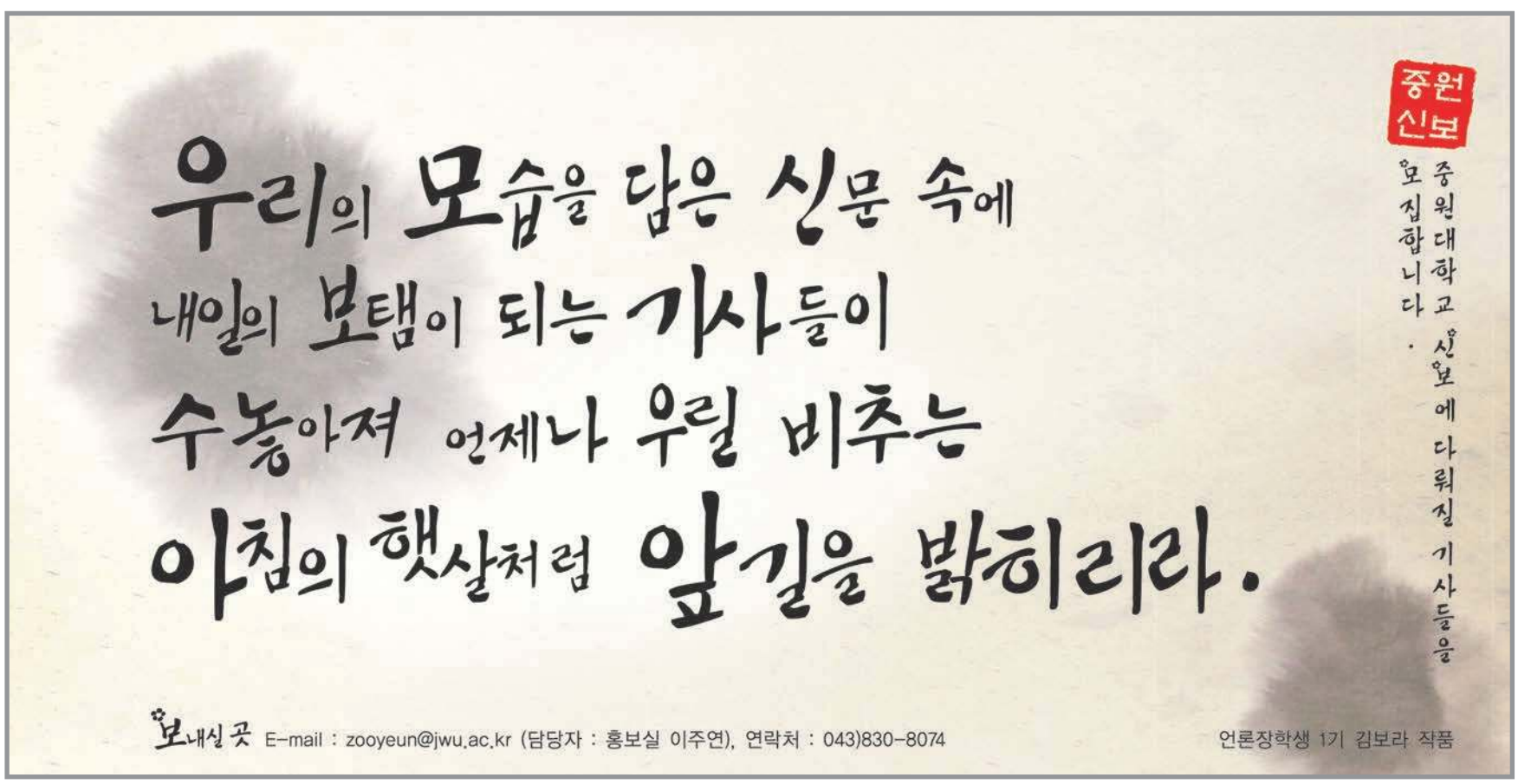
안녕하세요? 제 1기 언론장학생 기업경영학과 2학년 배정민이라고 합니다. 글 쓰는걸 좋아하는 저는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이번에 처음으로 우리학교에 학생기자가 생겼으니 앞으로 학교 행사 뿐만 아니라 우리 중원대 학생의 의견이나 소식까지 학교신문에 올려 저를 비롯한 여러분들까지 발간일을 기다리는 그런 학교 신문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재학생 여러분도 많은 관심을 갖고 적극 참여해 주세요~~~
〈배정민기자-기업경영학과12, bjm2706@naver.com〉


노은지_작업치료학과2학년

영상촬영과 편집 하는 일로 선발된 1기 언론장학생 노은지라고 합니다. 12학번으로 2학년 작업치료학과에서 재학 중입니다. 저는 학교 내외에서 기사화할만한 내용을 찾아다니기도 하며, 기자와 함께 취재를 가서 촬영을 한 후 영상을 편집하기도 합니다. 앞으로 중원대학교의 영상을 책임지며 전달력 있는 영상기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것입니다.
〈노은지기자-작업치료학과12, shdms1x@naver.com〉


노신철_산업디자인학과4학년

안녕하세요, 제 1기 언론장학생 디자인 부분을 맡게 된 13학번 산업디자인학과 노신철입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것이 엊그제같이 느껴지는데 벌써 대학교의 언론이라는 중요한 부분을 담당한다는 것이 매우 낯설고 또 신입생인 저로서는 부담감과 책임감을 느낍니다. 하지만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듯이, 항상 최선을 다하여 저의 부족한 부분들을 하나하나 메꾸어 나날이 발전하는 모습을 보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노신철-산업디자인학과13, sin4857@daum.net〉



홍보대사와 함께하는 **중원사랑 캠페인**

나도 홍보대사다

Congratulation PHOTO GALLERY

경찰행정학과 일동 거수경례

우리나라를 지켜나갈 경찰행정학과 학생들 일동의 거수경례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경찰행정학과, 신형원)

1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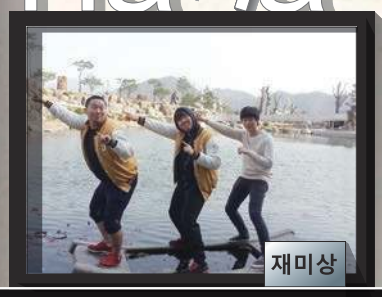
커플 운동화를 신고

친구와 함께 커플 운동화를 신고 연인의 모습을 표현하였습니다. (태권도학과, 최근호)



커플상

HaHa



재미상

중원대학교 선후배의 모습

선 후배가 뭉쳐 한배를 타고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중원대학교 학우들의 모습을 담아 보았습니다. (의료정보행정학과 신광철)

세계로 향하는 중원대학교

두 손을 하늘로 향하고 있는 포즈를 통해 세계와 연결된 작은 지구촌 중원대학교의 이미지를 표현하였습니다. (기업경영학과, 강은석)

중원의 의료생명공학과

(의료생명공학과, 조영서)

특별상



역시 중원약수 예요!!

(방재안전과학과, 지경일)



특별상

JUNG

제1회 나이팅게일선서식

나이팅게일 선서식을 기념하며 간호학과 학우들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간호학과, 변다영)



단체상

WON

JUNGWON UNIVERSITY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농구동아리 – Fire In the Hole



안녕하십니까? 저희 동아리는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여 만든 농구 동아리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중원대학교의 농구동아리 'Fire In the Hole' 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아시다시피 농구를 하는 동아리입니다. 주로 활동은 학교 내에서 농구부원끼리 모여서 농구를 하지만, 다른 지역의 동호회나 다른 학교의 동아리와 만나 농구를 하기도 합니다. 운동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계속 같은 사람들과 경기하면 지루할 때도 있기 마련이지만 주말에 다른 동아리나 동호회 분들과 농구경기를 함으로써 더욱 즐겁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농구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모여 만든 동아리이기 때문에 그만큼 활발하고 재밌는 경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프로 농구시즌에는 단체로 가서 응원을 하고 친목을 다지기도 합니다. 저희 동아리의 인원 모집은 수시모집이기 때문에 누구든 농구동아리를 들고 싶으면 들 수 있고 잘하지는 않지만 농구를 하고 싶은 학우분들도 선배님들 혹은 동기, 후배님들에게 배워 갈 수 있다는 것이 저희 동아리에 장점입니다. 같이 농구하면서 재밌는 대학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화감상동아리 – Cine

저희 동아리는 영화감상 동아리 입니다.

저희 동아리에서는 영화를 감상하고 영화를 통해 생각하고 감성을 키우고 영화를 통해 얻은 교훈으로 인생에 있어서 필요한 삶의 지혜를 배웁니다.

저희 동아리가 추구하는 신념은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동아리이기에 학업에 구애 받지 않고 즐겁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문적인 기술이 필요하지 않은 동아리여서 동아리에 들어가고 싶은 학생들은 누구나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예능동아리 – E.N.T

중원대학교 최고의 퀄리티를 자랑하는 동아리 !! E.N.T !!

E.N.T 란?

Entertainer 의 약자로써 '예능인' 이라는 의미를 갖고있습니다!

보컬, 랩, 댄스 각 분야의 재능을 가진 중원대학교 학생들이 자신의 기량을 맘껏 펼칠 수 있는 동아리입니다 .

2010년 E.N.T가 탄생하여 올해 4년째 전통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최상의 무대연출과 프로듀싱, 레코딩, 안무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무대를 위하여 동아리 운영을 하고있습니다.

매년 1회 뮤직비디오를 제작하여 동아리의 전통을 이어오고 있고 매년 전야제, 축제 등 최고의 무대를 준비하고 있는 E.N.T입니다.

늘 기대 이상의 무대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회장 류지훈 올림

커피동아리 – One Bean







안녕하세요? One Bean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커피에 대해 배우면서 친목을 쌓는 동아리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축제에 참여하여 커피를 만들며 학교생활의 추억을 하나 더 만들어갑니다 커피에 대한 기본적인 상식도 함께 알아가며 배웁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봉사를 즐기는 둥글레



봉사란, 자유의사에 의해 자발적으로 하는 실천행위 그 자체이며 복지사회를 만드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의도적, 계획적인 일상활동입니다.

봉사란, 시민의식을 기초로 지역사회를 위해 보다 살기 좋고 밝은 생활로, 상호연대하면서 구축해가는 끊임없는 활동입니다.

우리 둥글레는 다음과 같은 봉사정신을 띕니다.

자발성

자신의 의사로서 시간과 재능, 경험을 도움이 필요한 이웃과 지역사회 공동체 형성에 아무런 대가 없이 활동 하는 것입니다.

무보수성

경제적 보상과 관련되는 것으로 자원봉사활동에 대해 금전적 대가를 받지 않음을 뜻합니다.

사회복지성(공익성)

이웃과 지역사회 내에 산재하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여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활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지속성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게 되면 일정기간 동안 지속성과 정기적으로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둥글레 회원의 기본수칙입니다.

- 자신의 시간과 재능에 맞는 봉사일감을 찾습니다.
- 나에게 맡겨진 봉사일감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 자원봉사기관의 규칙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 주어진 봉사일감에 필요한 기술을 배워야 합니다.
- 기관 담당자 혹은 봉사단 리더의 지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 기관의 담당직원이 봉사일감을 믿고 맡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
- 봉사서비스 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여야 합니다.

대한 적십자 청소년 단체 – RCY

Red Cross Youth의 줄임말로, 대한적십자사에 소속되어 있는 청소년 단체입니다. RCY는 어린이 적십자, 청소년 적십자, 대학 적십자로 나눠져 있고, 대학 적십자에서는 봉사포스트활동, 학생지도자활동, 헌혈캠페인, 전국지사활동 등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RCY는 사랑과 봉사의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여 우리 주위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봉사활동에 최선을 다합니다. 또한 국내외 단원들과의 친선활동을 통해 남을 이해하고 사랑하며, 자신과 친구, 가족, 이웃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활동을 합니다.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는 보건활동 · 지역사회를 위한 봉사활동 · 국내외 친구들과의 친선활동 · 적십자 정신을 배우고 실천하는 적십자 이념보급활동 등 보람되고 재미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를 소개합니다

창업, 특허 동아리 – **청향**

저희 청향은 창업과 특허를 목표로 활동하는 동아리로서, 활동 중에 특허 뿐만 아니라 한약재를 이용하여 제빵이나 화장품 등 우리가 실생활에 쓰는 것을 접목 해보며 배우는 동아리 입니다.







동아리 활동 사진으로 복분자, 백년초, 시금치 분말을 이용하여 만든 쿠키입니다.

연극동아리 – **중원극회**

안녕하십니까? 중원대학교 연극동아리 중원극회입니다.

저희 동아리는 2012년 1학기에 새로 만들어졌고, 2학기부터 정식동아리가 되어 활동을 해왔습니다. 작년에는 괴산지역아동센터에서 재능기부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약 6개월 동안 아이들에게 연극지도를 해주면서 그만큼 많이 친해졌고 동아리원들 사이의 관계도 더욱 돈독해졌습니다. 11월 17일 괴산군민회관에서 연극회를 열었고 아울러 다른 동아리도 참석하여 무대에 섰습니다. 연극회를 마치고 뿌듯함과 동시에 여운도 크게 남았습니다.

보람된 한 해를 보내고 2013년 3기 모집을 했습니다. 면접을 통해 동아리원을 선발하였고, 1기, 2기 합해서 총 27명의 동아리원이 구성되었습니다.

일 년을 활동한 결과, 올해부터는 우리 동아리에 맞는 것을 해보자는 마음을 가지고 크게 두 가지의 목표를 정했습니다. 1학기에 UCC공모전, 2학기에 축제공연(단막극) 이렇게 진행 할 예정입니다.

동아리하면 친목!! 중원극회 사람들은 친밀도가 매우 높습니다. 과 상관없이 서로 어울려 회의하고 활동하고 대화하고 회식도 하고, 방학 때는 연극관람도 합니다. 그리고 한 해가 끝날 즈음 다 같이 모여 사진찍는것으로 마무리를 합니다.

연극동아리라고 부담 갖지 마세요~!!

늘 새로운 마음으로 다 같이 기초를 닦는 연습부터 하기 때문에 즐거운 마음으로 중원극회를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공모전 동아리 – **혜윰**

"혜윰" 3기 모집

안녕하세요, "혜윰" 동아리 회장 안희원입니다. "혜윰"이라는 이름은 생각이라는 뜻으로 순우리말 입니다. 무엇을 하는 동아리인지 궁금하시죠! 저희 동아리는 공모전 동아리입니다.

사람은 항상 끊임없이 생각하며 생각의 폭을 넓혀갑니다. 자신의 생각, 즉 아이디어를 최대로 활용하여 공모전이라는 수단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대학생 시기에 공모전에 한번쯤은 나가고 싶지만 혼자 나가기가 부담스러워서 공모전을 나가지 못하는 학생들을 위해 만들어진 동아리입니다. 이러한 학생들은 주저하지 말고 "혜윰"을 찾아주세요.



공모전 대상 수상


UCC공모전 제작 활동


2012 혜윰 동계 M.T

동아리 주요 활동 경력

- 충북경찰서 주최, 주폭 UCC 공모전 참가
- 잡코리아, 글로벌 프런티어 공모전 참가
- 중원대학교 UCC 공모전 대상
- 중원대학교 사진 공모전 장려상
- 충주 과수원 농촌 봉사 활동
- 동계/하계 동아리M.T

녹색동아리 Green Challengers

안녕하세요~ 녹색동아리 Green Challengers 입니다!

이름만 들어도 싱그러움이 솔솔~ 느낌이 오지 않으세요?

바로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신 대로 환경동아리입니다.

최근 들어 봄인지 겨울인지 알 수 없는 날씨변화를 느끼지 않으셨나요?

지구 온난화를 비롯한 이러한 날씨변화를 바로 '기후변화'라고 합니다.

기후변화의 주범은 CO2 때문인데 CO2 배출이 많아 문제가 되는 기관이 바로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모든 대학에서는 CO2 배출을 줄이고자 대학생들이 스스로 그린리더(Green Leader)가 되어 그린캠퍼스(Green Campus) 운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아리 또한 중원대학교를 그린캠퍼스로 만들기 위해서 아래와 같은 활동을 4년간 지속하고 있습니다 :)

- A4용지 사용을 자제하고 '이면지 활용'
- 폐식용유를 이용한 '빨래비누 만들기'
- 책이나 생활용품을 공유할 수 있는 '도네이션 박스'
- 잔반량 감량을 위한 무잔반 실천 운동 '잔실이 이벤트'
- 비닐봉지 사용을 줄이기 위한 '사랑나눔 에코백(Eco-bag) 캠페인
- 녹색 인재 양성을 위한 '녹색생활실천 교육'





창업동아리 – J-Trading



저희 창업동아리는 3월 20일 신입부원을 뽑고 현재 아카데미 홀 쪽에 있는 카페 오픈을 준비하기 위해 많은 회의를 거쳤습니다.



▲ 카페 오픈 때의 모습
학생들이 편하게 와서 공부하는 모습.

◀ 축제 때의 카페 홍보를 하는 모습의 사진
(재미나게 꾸며 사람들의 눈길을 끌며 홍보했던 모습.)

법치주의의 확립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이다



김 두 년
(법학과 교수/대학원장)

2013년 4월25일은 제50회 법의 날이다. 법의 날은 법의 존엄성을 고취시키기 위해 제정한 날인데 미국에서는 1958년 세계최초로 법의 날을 제정하고 매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제정하여 기념하기로 했다. 1958년 5월 1일 법의 날 기념식에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법에 관한 자유는 우리가 숨 쉬는 공기와 같다. 사람들은 이를 당연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그 자유는 박탈당하기 전까지는 인식하지 못한다. 일상생활에서 법의 지배가 의미하는 바를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법의 지배가 없는 곳에 무엇이 일어날 것인가를 상상해보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를테면 '한 밤중의 무서운 노크 소리' 같은 것이다"라는 연설을 해 '법의 지배' 원칙을 재삼 강조했다.

우리나라에서도 국제관례에 따라 1964년 5월 1일을 법의 날로 정하고 제1회 법의 날 기념식이 거행되었다. 이 날 낭독된 법의 날 제정취지는 "우리는 권력의 횡포와 폭력의 지배를 배제하고 기본인권을 옹호하며 공공복지를 증진하는 소위 '법의 지배'가 확립된 사회의 건설을 위해 일반국민에게 법의 존엄성을 계몽함"을 강조하였다. 2003년부터는 우리나라에서 근대적 사법제도를 도입하는 계기가 된 재판소구성법이 시행된 날인 4월 25일을 법의 날로 변경되어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이제 제5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50년 전 처음으로 법의 날을 제정할 당시와 비교하여 오늘을 사는 우리들은 '법의 지배가 확립되고 법의 존엄성이 존중되는 사회'에 살고 있는가를 새삼 돌아보아야 한다. 교과서에 인용된 한국인의 법의식 변화를 보면 '법대로만 하면 손해 본다'는 설문에 대해 1981년에는 31.5%가 그렇다고 응답했으나, 1996년에는 무려 54.5%가 그렇다고 응답했다. 한국법제연구원의 2008년 국민법의식조사연구를 보면 '우리사회에서 법이 어느 정도 잘 지켜지고 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62.8%가 잘 지켜지지 않는 편이라고 대답했다. 법이 잘 지켜지지 않는다는 응답자에게 그 이유를 물은 결과 '법대로 살면 손해를 보니까'라는 의견이 (34.3%) 가장 많았고, '법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많아서'라는 응답(20.1%)이 그 다음으로 많았다. 그 뒤를 이어서 법을 지키는 것이 번거롭고 불편해서(14.5%), 법을 잘 몰라서(11.7%), 법을 지키지 않아도 처벌받지 않을 것으로 생각해서(10.1%), 법을 지키지 않아도 다른 사람이 모를 것 같아서(8.4%) 등의 의견이 있었다. 한 편 통계청이 발표한 2011년 한국의 사회지표에서는 범죄위험에 대하여 불안하다는 응답이 63.2%, 범죄피해의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이 40.0%, 야간에 혼자 걷기 두려움을 느낀 사람이 40.8%에 달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법에 대해서 그릇된 사고를 가지게 된 것은 몇 가지 원인이 있다. 첫째, 유교적인 사고의 영향이다. 유교적 전통 아래서는 분쟁해결 수단으로서의 법의 기능을 '예의'나 도덕적 윤리규범보다 격이 낮은 것으로 생각하고 법을 무시하게 된다. 둘째, 일본 식민지의 영향을 들 수 있다. 일본 제국주의 아래서의 법은 주로 우리를 괴롭히는 제도로 운영되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법을 별로 달갑게 생각하지 않게 된 것이다. 셋째, 동서양의 법의식의 차이이다. 서양에서는 법은 무엇이 악인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서 법 앞의 평등과 엄격성과 권위성이 강조되었지만, 동양에서는 법은 백성을 다스리고 지배하는 수단으로 여기고 백성들은 법은 무서운 것 자기가 거리가 먼 것으로 느끼고 지배자의 법과 피지배자의 법이 따로 있는 것으로 느꼈기 때문이다.

과거 일제강점기에는 법을 식민지배의 도구로 삼았고, 해방 후에는 법이 정권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여겼다. 60년대 이후 경제성장과 행정편의주의의 정치로 치달아 오면서 법적인 문제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부차적이고 조작할 수 있는 것으로 믿어왔다. 군사정부 시절에는 안보라는 이름으로 법의 집행을 정당화 시켰다. 일반 국민들은 밀어붙이기식 법의 강제력에서 일제치하의 법을 연상하게 되었고, 법을 강제의 수단 · 지배의 수단으로 속단하게 되었다. 이러한 현상은 결국 법에 대한 불신을 낳게 하였으며, 특히 경제발전만을 강조하여 분배의 측면을 소홀히 취급한 결과 법치에 대한 불신은 날로 심화되어 왔다.

우리가 꿈꾸는 대한민국의 선진화는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사회이다.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지 않고는 국민이 풍요로울 수 없고 삶의 질과 격이 높아질 수 없다. 법치주의 없이는 민주주의도 시장경제도 성립할 수 없다. 한 마디로 일류국가, 상등국가인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법치가 바로서야 우리의 삶이 예측가능하고 미래를 바르게 살아갈 수 있다. 법치주의가 대한민국에 굳건히 뿌리를 내려야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유와 존엄 그리고 생명과 재산이 보호될 수 있다. 법치주의의 확립은 대한민국의 선진화라는 국가목표와 시대적 과제를 달성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전제조건의 하나이다.

이제 법과 질서를 무시하고 정당한 법집행에 대항하는 것을 마치 큰일이나 해낸 듯이 여기는 일부 그릇된 시민의식은 점차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 유전무죄(有錢無罪) 무전유죄(無錢有罪)라는 식의 비아냥 거림은 법치주의를 위한 국민의 준법의식에 큰 걸림돌이 된다. 제대로 된 법과 제대로 된 법의 집행을 눈으로 보여주는 것만이 국민의 호응을 얻을 수 있는 법치주의의 확립을 위한 가장 정직한 방법이다. 법치주의에 대한 제대로 된 인식이 있는 국민들의 감시가 있다면 국가권력은 언제나 바르게 작동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법치주의는 역사적 산물이기에, 현재를 사는 우리에게도 치욕으로 얼룩진 헌정사에 대한 더 정확하고 더 진실 된 연구와 반성이 필요한 것이다. 이러한 노력에 의하여 우리 사회는 진정으로 안정되고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어 열심히 노력하는 자가 대우받고 잘못된 자는 그에 상응한 불이익을 받게 되어 법의 목적인 정의가 실현되어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선진사회가 될 것이다.

마침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 후 법무부의 첫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 "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으려면 공직의 부정부패를 없애고 공정한 법질서 확립으로 법치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말을 하였다. 제50회 법의 날을 맞이하여 대통령의 말씀이 가슴에 와 닿는 것은 법치의 확립이 선진국가로 가는 지름길임을 잘 알기 때문이다.

'인성교육과 밥상머리교육'으로 학교폭력 예방해야



한 형 서
(경찰행정학과 교수)

국가는 일정한 테두리 안에서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교육공간, 즉 그들만이 공유할 수 있는 배움의 터를 만들어 줘야 한다. 그 속에서 학생들은 창의력을 개발하고 안락한 학교·사회생활을 배워야 하며 학교와 교사는 올바른 교육관 형성의 나침반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럼에도 오늘날 우리나라 교육현장의 실태는 어떠한가. 현재 교사의 교권은 땅에 떨어져 제자들로부터 존경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폭행 당하거나 학부모로부터 무시·폭력을 당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그리고 학생들은 가장 가까이 지내고 있는 친구에게마저 폭력을 행사함으로써 가장 안전해야 할 교육의 장이 위협받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지난달 16일 전국 16개 시·도 초중고생 514만 명 중 379만 여명이 참여한 설문 결과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학교폭력 대부분은 학교 내, 특히 교실에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은 심한 욕설, 물건·돈 빼앗김, 집단 따돌림 등의 순서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친구가 폭행을 당하고 있어도 모른 척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게다가 학교폭력을 경험한 피해학생이 동시에 가해경험도 있다는 데 심각성이 크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을까.

첫째, 학교폭력에 대한 인식 변화가 사회 전반에 확산하여야 한다. 특히 학교폭력을 교육당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둘째, 가정에서의 지속적인 '인성교육과 밥상머리 교육'이다. 우리의 전통예절과 관습이 사라지는 상황에서 자녀 인성교육이 얼마나 잘 되고 있는지 냉철히 반성해야 한다. 대부분 부모들은 맞벌이를 하고 있지만 짧은 시간이라도 자녀들과 마주 앉아 교감을 통해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셋째, 학교생활은 공동체의 삶을 가르치는 기회와 소통의 장이 되야 한다. 특히 부모들은 자식에 대한 사랑과 교육에 높은 관심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질만능주의에 빠지지 않도록 끊임없는 대화로 공동체의 삶을 가르쳐야 한다.

넷째, 교육당국은 폭력 예방 프로그램과 함께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도록 유관단체와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한다. 학교·학부모·관련단체(교육청, 경찰청 및 경찰서, 종교단체, 시민단체) 등이 참여하는, 지속적이고 연속적인 시스템이 중요하다.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실효·지속성이 없다면 성과를 기대하기 힘들 뿐만 아니라 전시 행정으로 전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교는 교내에서 발생한 폭력사건을 은폐하지 말고 투명하게 공개해 제2, 제3의 피해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지금까지 대부분 학교는 이미지 때문에 학교폭력을 은폐하거나 소극적인 자세로 일관해 왔다. 투명한 공개와 선제적 대응이야말로 현 시점에서 학교당국이 반드시 취해야 할 과제다.

Chinese

고사성어로 배우는 중국어



염재웅 교수
(중국통상학과)

愚公移山(Yú gōng yí shān)

옛날 중국의 기주(冀州)라는 곳에 연세가 90세에 가까운 우공(愚公)이라는 노인이 살고 있었다. 이 노인의 집 앞에는 태행산(太行山)과 왕옥산(王屋山)이 가로놓여 있어 인근 마을과의 교통에 많은 불편을 느끼고 있었다. 우공은 가족들을 불러 온 가족이 힘을 합쳐 삽과 곡괭이로 이 산을 옮기자고 제안했다. 모든 가족이 우공의 의견에 찬성했지만, 우공의 아내만은 "당신처럼 연로한 사람이 그 산을 옮길 힘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산을 옮기면서 생기는 흙은 어떻게 할 거예요?"라며 나무랐다. 그러자 가족들이 "그 흙은 발해(渤海)에 버리거나, 은토(隱土) 지역의 북쪽을 메우면 되니까, 걱정 마세요."라고 대답했다. 이렇게 해서 매일 가족들과 산을 옮기기 시작한 우공은, 어느덧 겨울이 지나고 여름을 맞이하였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마을에서 가장 지혜롭다고 소문난 지수(智叟)라는 노인이 우공에게 다가와서, "당신처럼 우둔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은 나이가 너무 많아 산에 자라는 풀 한 포기도 옮길 수 없는 노인인데, 어떻게 저 산의 흙과 바위를 옮길 수 있다고 큰 소리 친단 말이오?" 이에 우공은 길게 탄식하면서, "당신은 앞뒤가 꽉 막힌 사람이군요. 내가 이 일을 하다가 죽더라도 나의 아들이 나를 이어 이 공사를 할 것이고, 내 아들이 죽더라도 내 손자가 이 일을 계속하게 될 것이오. 대대손손 이 일을 이어받아 해나가면, 산이 저절로 자라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평평하게 깎여나갈 날이 올 것이 아니겠소?" 이 말을 들은 지수 노인은 제대로 한 마디 대꾸도 못하고 돌아갈 수밖에 없었다. 우공의 이런 각오를 듣게 된 산신(山神)은 천제(天帝)에게 이 사실을 아뢰었고, 천제는 다음 날 두 장사를 보내어, 우공 집 앞에 놓여있던 산을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다. 그 후로 기주 남쪽은 산이 없는 평야가 되었다고 한다.

이상의 고사에서 유래한 것이 "愚公移山(Yú gōng yí shān, 우공이산: 우둔한 노인이 산을 옮기다)"라는 고사성어이다. 중원대학교 학생이라면 모두 대학생활에서 이루고자하는 꿈과 이상이 있을 것이다. 그 꿈이 비록 지금은 조금 멀게 느껴지더라도, 우공이 산을 옮기고자 했던 인내와 끈기로 한 걸음씩 꿈을 향해 다가가면, 어느새 그 목표에 근접해 있는 자신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결코 우공을 비웃으려 했던 지수 노인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할 것이다.

한자풀이

愚 [yú, 우] 어리석다, 우둔하다
公 [gōng, 공] 나이가 많은 남성에 대한 존칭, 어르신
移 [yí, 이] 옮기다
山 [shān, 산] 산, 뫼

English

Alex's English



영어 알파벳이 대문자(capital letters/capitals)와 소문자(small letters)가 있다는 것은 처음 영어를 배울때 알게 되죠? 그런데 한국어에는 없는 이 괴상한 구분 때문에 대학에 들어와서 영작문을 해도 언제 대문자를 쓰는지 또 언제 소문자를 쓰는지 잘 모를 때가 있나봐요. 알고 있으면서도 무시해 버리거나 깜빡하는 탓에 소문자와 대문자의 쓰임을 지적당하면 은근 기분 상하잖아요. 이번엔 영어 알파벳 대문자를 어디 쓰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문장의 처음 – Good job! 잘했어! This is my room. 여긴 내방이야.
*사람 이름, 지명 이름 – Alex 알렉스, Seoul 서울, Jun-ho 준호
*자신을 의미하는 대명사 "나" – I am hot! 나 더워요!
*영화, 책, 연극의 제목 – the Lion King 라이온킹
*산, 바다, 강의 이름 – The river Han flows through Seoul. 한강은 서울을 가로질러 흘러요.
*약자– CSI 과학 수사대
*요일과 월, 휴일 – Monday 월요일 ,March 3월, Christmas 크리스마스
*나라 이름과 언어 – Korea 한국, Korean 한국어
*종교– Christianity 기독교
*호칭, 직위를 나타내는 말 – Mr. Kim and Dr. Lee are friends. 미스터 김과 이박사님은 친구입니다.

<중원대학교 제 2대 총학생회 활동내역>

2012. 11. 29 중원대학교 제 2대 총학생회 '가온' 당선
2012. 12. 06 제설작업
12. 22~23 리더십향상을 위한 O.T
2013. 02. 27~28 2013학년도 신입생 O.T
2013. 03. 04 제 1대 총학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음
03. 06 제 1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03. 08 토익 교육역량강화사업 완료
03. 13 제 2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03. 14 복지향상을 위한 설문조사 실시
03. 18 총학생회 임원 모집, S607호로 학생회실 이전
03. 20 제 3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03. 25 총학생회 임원 면접, 2013년 총학생회 페이스북 활성화
03. 27 제 4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2013. 04. 01 괴산읍내와 중원대학교의 제휴 15곳 시행
04. 02 괴산 군청 방문
04. 03 제 5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04. 04 괴산택시 지부장님과 미팅, 총장님과 학생회 간부급 미팅
04. 10 제 6회 중앙운영위원회 회의
04. 15 헌혈, 자궁경부암 인원 파악 중
야간셔틀 진행 중
게시판 설치
졸업사진 진행 중
체전 준비



<중원대학교와 괴산 읍내 상권제휴>

– 학생증 제시, 현금 결제 시

한양진	상차림 비 5,000원에서 4,500원으로 할인
의정부 부대찌개	부대찌개 7,000원에서 6,000원으로 할인
괴산해장국	5인 이상 식사 시 총금액에서 1천원 할인 감자탕 주문 시 음료서비스& 1천원 할인
일억 식당	미리 예약 시 10% 할인
중국성	3인 이상 주문 시 만두서비스, 공기밥 무료제공 100,000원 이상 결제 시 10% 할인
강릉떡집	떡 50,000원 이상 구매 시 10% 할인 떡 10팩 구매 시 1팩 제공
또래오래	피자, 치킨 구매 시 콜라 500ml를 1.25ml로 제공
강정이 기가 막혀	2set이상 구매 시, 콜라 500ml를 1.25ml로 제공
몽마르조	모든 안주 10% 할인
앤츠	50,000원 이상 결제 시 황도 또는 돈가스 제공, 현금결제 시 5% 할인, 여성고객 5명 이상 시, 1.25L 음료 무료 제공
안경나라	안경구매 시 5%할인, 렌즈구매 시 렌즈세척액 하나 더 증정
드림디포	10,000이상 물품 구매 시 5%이상의 할인 제공
양지사진관	증명사진 촬영 시 10% 할인
서부병원	20% 할인
보성당	시계 배터리 교체 시 1000원 할인, 금 한 돈 구매 시 시세가 에서 5000원 할인
괴산꽃집	생화, 화분 구매 시 10% 할인

Always ON

중원대학교 JUNGWON UNIVERSITY

한반도의 중심, 중원대학교
교양인, 전문인, 세계인을 키우는
글로벌 명품대학교

글로벌 교육의 중심에서 질 높은 교육 커리큘럼과 특화된 전공으로
해외 우수한 인재를 국내로 유치하며 명품대학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는 중원대학교는
세계무대의 대학들과 경쟁하며 차별화된 선진교육의 모델을 지향합니다.



미래지향 정예교육의 특화된 학과

- **·인문사회과학대학** – 세계종교학과 / 한국학과 / 기업경영학과 / 중국통상학과/ 일본통상학과 / 영미통상학과 / 러시아통상학과 / 경찰행정학과 / 법학과 / 사회복지학과
- **·이공대학** – 의약화학과 / 의생명과학과 / 방재안전과학과 / 한방식품산업학과 / 한방소재산업학과 / 첨단소재공학과 / 신재생에너지학과 / 자원순환환경공학과 / 검퓨터시스템공학과 / 의료공학과 / 메카트로닉스학과
- **·예체능대학** – 산업디자인학과 / 방송연예학과 / 태권도학과 / 골프과학과 / 레저스포츠학과
- **·의료보건대학** – 의료정보행정학과 / 간호학과 / 임상병리학과 / 작업치료학과 / 스포츠건강의학과

2014 신입생 모집 안내

- 수시 1차 : 2013.09.04(수)~09.13(금)
- 수시 2차 : 2013.11.11(월)~11.15(금)
- 정시모집 : 2013.12.20(금)~12.24(화)
- 입학문의 : 043) 830-8082~5
- http : //ipsi.jwu.ac.kr